

朝鮮朝 經筵에서 正祖의 讀書歷 考察*

A Study on the Jeongjo's Reading Career in the Gyeongyeon of Joseon Dynasty

金重權 (Kim, Joong-gwon)**

◁ 목 차 ▷

1. 緒言	3.1 讀書資料
2. 晝講의 讀書日程	3.2 讀書回數
2.1 前半期	4. 讀書不進要因
2.2 後半期	5. 結言
3. 讀書資料 및 讀書回數分析	<참고문헌>

< 초 목 >

본 연구에서는 조선조 22대 왕 正祖의 讀書歷을 살펴보기 위하여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를 통해 재위 25년 동안 晝講에서의 독서일정을 파악하여 그의 독서력을 밝혔다. 정조는 1776년 25세에 즉위하면서 경연제도를 재정비하고 주강을 실시하였으나 14년(1790)에 중단하였다. 게다가 13년(1789) 2회, 14년에는 1회 밖에 실시하지 않았으며, 그 이후로 거의 주강에서는 독서하지 않았다. 정조가 주강에서 읽었던 책은 『春秋集傳』·『論語』·『孟子』·『中庸』·『大學』 등 5종이다. 독서토론 참여 회수는 즉위년부터 14년과 21년(1797) 1회까지 246회로 조사되었다. 이는 연 평균 9.8회로 아주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정조의 주강에서의 독서력은 아주 저조함으로 나타났다.

要語: 經筵, 論語, 大學, 孟子, 正祖, 晝講, 中庸, 春秋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JeongJo's reading career in the Jugang (晝講) of Joseon Dynasty. To analyze the contents of the *Sillog* (the book which records the history of Korea) and the *Seungjeongwonilgi* (承政院日記), it knew the reading materials, a reading act and attitude which he read in the Crown prince time. Major findings are as the follows; The reading materials that he read in the Jugang were 5 titles, that is, *Chunchujipjeon* (春秋集傳), *Noneo* (論語), *Maengja* (孟子), *Jungyong* (中庸), *Daehag* (大學) etc, and the king Jeongjo read these books from the entronement year (1776) to the 24th year (1800) of Jeongjo's reign. The number of times that he participated to the Jugang's reading discussion was 246. He was the king who disliked reading in the Jugang from 1776 to 1800, when he was in power, moreover he was not almost presented at the reading discussion of the Jugang to the end of seizure of power. As a result, JeongJo's reading career in the Jugang was much lower than the King's reading career in past.

Key words: Gyeongyeon(經筵), *Noneo*(論語), *Daehag*(大學), *Maengja*(孟子), Jeongjo(正祖), Jugang(晝講), *Jungyong*(中庸), *Chunchujipjeon*(春秋集傳)

* 본 논문은 2020학년도 광주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광주대학교 인문사회대 문헌정보학과 교수(jkkim@gwangju.ac.kr)

투고일: 2020년 8월 10일 최초심사일: 2020년 9월 2일 게재확정일: 2020년 9월 10일
서지학연구, 제83집, 75-106, 2020. <https://doi.org/10.17258/jib.2020.83.75>

1. 緒言

정조(1752-1800)는 조선 22대 왕으로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이름은 祘, 자는 亨運, 호는 弘齋이다. 영조가 1776년 3월 83세로 승하하자 25세의 나이로 홍국영 등의 도움을 받아 왕위를 계승하였다. 즉위하자마자 규장각을 설치하여 도서관 및 학술연구기관으로 운영하였으며, 또한 교서관을 규장각 산하에 두어 각 종의 활자를 만들어 많은 책을 간행하기도 하였다. 정조 5년에는 규장각에 소장된 장서 3만 종을 대상으로 『奎章總目』을 완성하였으며, <抄啓文臣制>를 신설하여 젊은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였다. 말년에 가서는 그 동안 읽었던 여러 책들을 선별하여 교정한 『四部手圈』(정조 22, 1798)을 완성하고, 조선 왕들 중 유일하게 『弘齋全書』란 문집을 남기기도 하였다. 이는 세손시절부터 영조의 토론 대상으로도 참여하면서 그 역량을 발휘한데서 비롯되었다 할 수 있다. 당시 영조는 교육열이 상당히 강한 왕이었다. 사도세자가 죽기 전에는 세자를 직접 경연에 참석토록한 뒤 문답을 유도하고 학문에 힘쓰도록 하였으며,¹⁾ 또한 경연장소로 세자의 거처가 가까운 <歡慶殿>을 택할 정도로 세자 교육에 관심이 많았다.²⁾ 세자가 사망한 후에는 세손에 대한 교육열도 식을 줄 몰랐다. 이듬해인 39년(1763) 9월 22일엔 12살 밖에 되지 않은 세손을 주강으로 불러 『孟子』를 읽은 뒤 문답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강독하게 된 것이 어찌 우연이겠는가? 내가 너에게 질문해도 되겠는가? 仁은 무엇이고, 義는 무엇이나? 세손은 ‘惻隱이 仁이고 羞惡가 義입니다.’라고 하자 영조가 다시 ‘세자가 元亨利貞의 利자와 뜻이 같은가, 다른가’ 하고 묻자 세손은 ‘元亨利貞은 하늘의 네 계절을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의 利자는 곧 利慾의 利자입니다. 글자는 같지만 뜻은 다릅니다.’라고 답변하였다.”³⁾

이와 같은 답변으로 12세 밖에 되지 않은 세손은 영조를 놀라게 했다. 그 후에도 영조는 말년까지 세손을 경연에 참여시켜 문답하면서 학문적인 위상을 높이는데 일조하였다. 정조가 학문에 뛰어난 이유가 바로 조부인 영조의 가르침이 컸던 것이다. 그 영향으로 정조는 밤낮으로 시간만 나면 독서하는 습관이 형성되었으며, 즉위 후에는 경연제도를 답습하여 3講(조강, 주강, 석강) 2對(야대, 소대)를 실시하였다. 더욱이 경연관들과 책을 읽은 후 토론할 때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정도로 학문적인 자신감이 넘쳤다. 이처럼 독서에 관심이 많았던 정조에 대해서 개인적인 저작이나 경연 등 전반적인 면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⁴⁾ 주장에서 읽었던 책이나 독서기간, 독서회수 등의 이력에

1) 『朝鮮王朝實錄』英祖 23年 4月 24日(癸未) 卷65. 冊43. p.246.

2) 『朝鮮王朝實錄』英祖 23年 5月 13日(壬寅) 卷65. 冊43. p.247.

3) 『朝鮮王朝實錄』英祖 39年 9月 22日(丙子) 卷102. 冊44. p.146.

4) 姜順愛, “정조가 홍취영에게 보낸 어찰에 나타난 『四部手圈』 편찬·교정내용과 관련기록 연구,” 『書誌學研究』 제78집(2019. 6), 127-148.

姜泰訓, “朝鮮朝 經筵의 教育的 役割,”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대학원, 1991).

南智大, “朝鮮初期의 經筵制度,” 『韓國史論』 6(1986), 117-170.

李相玉, “經筵에 나타난 經學과 帝王,” 『友石 文理大·法經大論文集』 第4輯(1970. 12), 131-186.

대해서는 상세하게 밝혀진 바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朝鮮王朝實錄』과 『承政院日記』를 통해 3講 중 晝講을 중심으로 당시의 독서상황을 일정별로 시간과 장소, 읽었던 책과 범위, 독서 기간과 독서회수, 독서저해요인 등을 분석하여 정조의 독서이력을 밝히고자 한다. 이상 본 연구의 목적은 정조의 독서이력을 밝힘으로 인해 정조 개인에 대한 경연에서의 독서활동은 물론 조선조 왕들의 經筵史와 讀書史 연구에 일조가 되는데 있다.

2. 晝講의 讀書日程

본 장에서는 재위 기간 25년을 편의상 전반기, 후반기로 구분하여 주장에서의 정조의 독서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단, 재위 기간이 25년이었으나 주장의 기간은 즉위년(1776)부터 재위 14년(1790)까지이므로 전반기를 즉위년(1776)부터 6년(1782), 후반기를 7년(1783)부터 14년(1790)까지로 한정하였다(21년에 1회도 포함).

2.1 前半期

正祖는 전반기에 선왕들처럼 晝講에서 열심히 독서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경연관들과 상의하여 읽을 책을 결정하고 날짜와 시간은 하루 전에 보고 받아 실시유무를 정하였으며, 참여할 신하들도 미리 보고받아 독서할 준비를 하였다. 즉위 후 첫 번째로 선정된 책은 『春秋』였으며, 시간은 주로 辰時와 巳時, 午時로 정했으나, 때로는 卯時, 申時에도 주장을 실시하였다. 정조가 최초로 주장을 실시한 시기는 즉위년(1776) 8월 9일이다.⁵⁾ 당시 독서를 시작한 시간과 장소는 알 수 없으나 8월 19일 실시한 시간은 午時(11-13)였으며, 장소는 慶熙宮의 <興政堂>이었다. 참여한 신하는 知事부터 특진관, 참찬관, 시독관, 검토관, 가주서, 기주관, 기사관, 종신, 무신, 좌의정, 우의정, 병조판서, 한성우윤 등 지방의 察訪까지 참여하였다. 강독은 주로 시독관 및 검토관이 담당하였다. 당시 함께한 시독관과 검토관은 沈有鎭, 金觀柱였으며, 읽은 책은 『春秋』였다. 정조가 먼저 『春秋』 ‘古者列國’부터 ‘深切著明也哉’까지 읽고 시독관 沈有鎭이 강독한 뒤 독서 및 정책토론을 병행하였다. 이날 양사(사헌부, 사간원) 대간들이 참여하도록 했는데 결석하여 그들에게 책임을 물었다.⁶⁾ 8월 28일엔 巳時(9-11)에 興政堂으로 가서 정조가 먼저 『春秋』를 元年부터 春王正月까지 읽고 주석까지 읽었으며, 시독관 李儒慶은 ‘三月公及 郝儀父’부터 ‘夏五月 鄭伯’까지 읽고 그 뜻을 설명하였다.⁷⁾

5) 『朝鮮王朝實錄』 正祖 卽位年 8月 9日(戊申) 卷2. 冊44. p.614.

6) 『承政院日記』 正祖 卽位年 8月 19日 戊午. 51/54.

『朝鮮王朝實錄』 正祖 卽位年 8月 19日(戊午) 卷2. 冊44. p.616.

7) 『承政院日記』 正祖 卽位年 8月 28日 丁卯. 17/19.

즉위년 9월 1일은 『朝鮮王朝實錄』에는 주장의 기록이 없으나 『承政院日記』에는 당시 申時(오후 3시-5시)에 동일 장소에서 知事 李重祜, 特進官 李在協, 參贊官 鄭民始, 侍讀官 李儒慶, 檢討官 尹行修, 假注書 吳泰彥, 記注官 金鳳顯, 記事官 卜台鎮, 宗臣 鶴林君焞, 武臣 許沂, 左議政 金尙喆, 右議政 鄭存謙, 判尹 蔡濟恭, 大司諫 李敬玉, 掌令 具修溫, 獻納 李枰, 修撰 金履正, 副修撰 李秉模 등이 참석한 가운데 『春秋』 ‘三月公及邾儀父’부터 ‘夏五月鄭伯’의 주까지 읽고 시독관 李儒慶이 ‘秋七月天王’부터 ‘九月及宋’까지 읽은 다음 다시 정조가 시독관이 읽은 곳을 읽고 토론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⁸⁾ 9월 3일, 5일도 午時에 興政堂에서 주장을 하였으며, 3일 정조는 1일에 읽었던 『春秋』 ‘秋七月天王’부터 ‘九月及宋人’의 문장까지 읽고, 시독관 儒慶은 다음 내용인 ‘冬十有二月’부터 ‘公子益師卒’의 주석까지 읽고 나서 정조가 다시 읽은 뒤 토론하였으며,⁹⁾ 5일은 『春秋』 ‘冬十有二月蔡伯來’부터 ‘其見恩數之有厚薄歟’까지 읽고 시독관 尹弘烈과 ‘二年春公會戎于潛’부터 ‘義自見矣’까지 읽은 다음 시독관이 문장의 의미를 설명하였다.¹⁰⁾ 다음 날 6일에는 시간을 巳時로 정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尹弘烈과 『春秋』 ‘秋八月庚辰’부터 ‘大昏之禮嚴矣’까지 읽었다.¹¹⁾ 동 9일에도 巳時에 <興政堂>에서 『春秋』 第一卷, ‘秋八月庚辰公及戎’부터 ‘大昏之禮嚴矣’까지 읽은 다음 시독관 李儒慶이 ‘紀子伯’부터 ‘曲爲之說則鑑矣’까지 읽으면 정조가 다시 소리 내어 읽었다.¹²⁾ 즉, 정조의 독서방법은 복습과 예습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었다. 앞에 배운 범위를 정조가 먼저 읽고, 다음 배울 곳을 시독관이 읽고 나면 정조가 다시 읽는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시독관이 문장의 의미를 해석하고 참여한 신하들과 토론하는 방식이다. 9월 27일에도 정조가 전날 읽었던 부분 『春秋』 ‘十有二月己卯’부터 ‘皆可通矣’까지 읽고, 다음 읽어야 할 부분을 시독관 吳大益이 ‘三年春二月’부터 ‘天象也’까지 읽고 나면 정조가 다시 시독관이 읽은 부분을 읽었다.¹³⁾ 10월은 휴강하고 11월엔 5일부터 주장을 시작하여 閔養燮과 함께 ‘武氏子來求賻’부터 ‘上失其道則下不臣矣’까지 읽고 토론하였으며,¹⁴⁾ 다음 날 6일에는 午時에 興政堂에서 ‘八月庚辰宋公和卒’부터 ‘凡書盟者惡之也’까지 읽었다.¹⁵⁾ 이 날 주장에서 옥당의 경연관이 갑자기 물러갔다는 이유로 교리 閔養燮, 수찬 洪明浩, 장령 林濟遠, 헌납 辛應三을 체직하고 兩司(사헌부, 사간원)의 臺官 등을 파직하였다.¹⁶⁾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은 당시의 기강이 상당히 해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월 17일에는 午時에 ‘癸未葬宋穆公’부터 ‘其暴益肆矣’ 부분,¹⁷⁾ 11월 19일은 巳時에 興政堂에서 李在學과 ‘戊申衛州吁弑其君完’부터 ‘惡其無

『朝鮮王朝實錄』 正祖 卽位年 8月 28日(丁卯) 卷2. 冊44. p.620.

8) 『承政院日記』 正祖 卽位年 9月 1日 己巳. 31/32

9) 『承政院日記』 正祖 卽位年 9月 3日 辛未. 27/29

10) 『承政院日記』 正祖 卽位年 9月 5日 癸酉. 28/33

11) 『承政院日記』 正祖 卽位年 9月 6日 甲戌. 21/23

12) 『承政院日記』 正祖 卽位年 9月 9日 丁丑. 22/27

13) 『承政院日記』 正祖 卽位年 9月 27日 乙未. 23/24

14) 『承政院日記』 正祖 卽位年 11月 5日 癸酉. 26/29

15) 『承政院日記』 正祖 卽位年 11月 6日 甲戌. 20/23

16) 『朝鮮王朝實錄』 正祖 卽位年 11月 6日 甲戌 卷2. 冊44. p.636.

人君相見之禮也'까지,¹⁸⁾ 24일은 李敬養과 함께 '宋公陳侯蔡人衛人伐鄭'부터 '以謹履霜之戒'까지 읽었다.¹⁹⁾ 이상으로 즉위년 독서회수를 종합해 보면, 8월 9일, 19일, 28일 3회, 9월은 1, 3, 5, 6, 9, 27일 등 6회였으며, 10월은 휴강하고, 11월은 6, 16, 17, 19, 24일 까지 5회로 총 14회로 나타났다.

정조 1년(1777)에는 1월 8일부터 주장에서의 독서를 시작하였다. 그 날 午時 興政堂에 지사 蔡濟恭, 특진관 李重祜, 참찬관 林鼎遠, 시독관 鄭宇淳, 검토회관 李儒慶, 종신 安昌君燦, 무신 李弘圭, 가주서 金勉柱, 기주관 卜台鎭, 기사관 林錫喆 등이 참여한 가운데 앞에 읽었던 부분 음독으로 읽고 시독관 鄭宇淳과 함께 『春秋』 '會宋公陳侯'부터 '亂臣賊子懼'까지 읽고 그 의미를 들은 후 토론하였다.²⁰⁾ 11일에는 巳時에 시작하여 복습으로 음독한 다음 李在學과 『春秋』 第二卷, '衛師入郕'부터 '著其暴也'까지 읽었으며,²¹⁾ 3일 후인 15일에도 巳時에 『春秋』 第二卷, '九月考仲子之宮'부터 '正天下之大典'까지 읽고 해설하였다. 그러나 李義翊이 어제(14일) 정조에게 오늘 경연 실시여부를 묻는 말에, 정조는 조강을 승낙하였다. 그런데 오늘 주장으로 준비한 것이다. 그 일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하여 지사 徐命善에 의해 책임을 묻도록 하였다.²²⁾ 16일과 24일은 午時에 주강을 열었다. 16일의 독서 범위는 『春秋』 第二卷, '邾人- 止其及宜矣',²³⁾ 24일은 '宋人伐鄭'부터 '罪人之惡彰矣'까지 시독관 林錫喆과 함께 읽었다.²⁴⁾ 25일은 巳時에 興政堂에서 시독관 李獻慶 『春秋』 第二卷, '六年春鄭人來輸平'부터 '齊人盟于艾'까지 읽었으며,²⁵⁾ 계속해서 다음 날 辰時에 李獻慶과 『春秋』 '秋七月'부터 '天理之不誣者也'까지 읽었다.²⁶⁾ 이와 같이 1월에는 8일, 11일, 15일, 16일, 24, 25, 26일까지 총 7회의 독서를 한 것이다. 2월의 주강은 4일부터 시작하였다. 4일은 巳時에 興政堂에서 시독관 尹塾과 『春秋』 胡傳 第三卷, '七月春王三月'부터 '不莢非內也'까지²⁷⁾ 5일에는 辰時에 李在學과 『春秋』 第三卷, '夏城中丘'부터 '來世之意也'까지 읽고 토론하였다. 이날의 독서는 『조선왕조실록』에는 주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승정원일기』에는 조강으로 되어 있다.²⁸⁾ 조강에는 영사가 참여하도록

17) 『承政院日記』 正祖 卽位年 11月 17日 乙酉. 29/29

18) 『承政院日記』 正祖 卽位年 11月 19日 丁亥. 29/31.

『朝鮮王朝實錄』 正祖 卽位年 11月 19日(丁亥) 卷2. 冊44. p.639.

19) 『承政院日記』 正祖 卽位年 11月 24日 壬辰. 30/32.

『朝鮮王朝實錄』 正祖 卽位年 11月 24日(壬辰) 卷2. 冊44. p.640.

20) 『承政院日記』 正祖 1年 1月 8日 乙亥. 28/31.

『朝鮮王朝實錄』 正祖 1年 1月 8日(乙亥) 卷3. 冊44. p.646.

21) 『承政院日記』 正祖 1年 1月 11日 戊寅. 28/30

22) 『承政院日記』 正祖 1年 1月 15日 壬午. 21/23.

『承政院日記』 正祖 1年 1月 14日 辛巳. 2/22. “李義翊啓曰, 明日常參·經筵, 取稟. 傳曰, 只朝講.”

23) 『承政院日記』 正祖 1年 1月 16日 癸未. 26/29

24) 『承政院日記』 正祖 1年 1月 24日 辛卯. 22/24

25) 『承政院日記』 正祖 1年 1月 25日 壬辰. 16/20

26) 『承政院日記』 正祖 1年 1月 26日 癸巳. 18/20.

『朝鮮王朝實錄』 正祖 1年 1月 26日(癸巳) 卷3. 冊44. p.649.

27) 『承政院日記』 正祖 1年 2月 4日 庚子. 34/37.

『朝鮮王朝實錄』 正祖 1年 2月 4日(庚子) 卷3. 冊44. p.651.

28) 『朝鮮王朝實錄』 正祖 1年 2月 5日(辛丑) 卷3. 冊44. p.652.

하는 규정상, 이날 영사 金尙喆이 참여한 것으로 보면 조강이 확실한 듯하다. 동 18일 巳時에 李在學과 『春秋』 第三卷, ‘秋公伐邾’부터 ‘爲賦所滅則有由’까지 읽고²⁹⁾ 21일엔 午時에 같은 책 ‘夏六月己亥, 蔡侯考文卒’부터 ‘亦變周制矣’까지 읽고 그 의미를 파악하였다.³⁰⁾ 그리고 22일 巳時에는 ‘八月葬蔡宣公’, ‘治亂之效明矣’까지 읽었다.³¹⁾ 이상 2월의 주장은 4일 5, 18, 21, 22일까지 총 5회였으나 5일을 조강으로 하면 4회에 해당된다. 3월은 15일부터 주장을 실시했으며, 시간은 辰時, 장소는 興政堂이었다. 시독관은 朴在源이었으며, 독서 범위는 ‘九年春’부터 ‘聖人所書之意矣’까지였다.³²⁾ 16일은 동 장소에서 午時에 실시한바 정조가 먼저 앞서 읽은 내용을 읽고 시독관이 읽은 ‘挾卒’부터 ‘不異其文以此’까지 다시 읽은 후 문의를 듣고 토론하였다.³³⁾ 21일 역시 午時에 시작하여 ‘夏公會鄭伯’부터 ‘不可不察也’까지 읽었으며,³⁴⁾ 6일 후 27일 辰時에는 시독관 朴宗來와 ‘冬十有一月壬辰’부터 ‘亂臣賊子懼’를 읽은 후 『春秋』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토론하였다.³⁵⁾ 결국 3월의 독서는 15일, 16, 21, 27일까지 4회로 마감하였다. 4월에는 4일부터 시작하였다. 그 날 辰時에 興政堂에서 시독관 林蓍喆과 ‘元年即位之始年’부터 ‘不可以邪汨之也’까지,³⁶⁾ 12일에는 ‘二年春王正月戊申’에서 ‘有國之急務也’까지 읽고, 검토관 沈煥之가 읽은 ‘滕子來朝’부터 ‘亂臣賊子’까지 읽고 토론하였다.³⁷⁾ 4월 13일은 巳時에 시독관 朴在源과 ‘三月公會齊侯’부터 ‘然後見其罪矣’까지 시독관이 문장의 의미를 해석하였으며,³⁸⁾ 17일 辰時에는 앞에서 읽었던 부분 ‘三月公會齊侯’부터 ‘然後見其罪矣’를 다시 읽고 李在學과 ‘夏四月取郟大鼎’에서 ‘待四夷之道矣’까지 읽었다.³⁹⁾ 22일에도 17일에 읽었던 부분을 다시 읽은 후 沈念祖와 함께 ‘九月入杞’부터 ‘子不子’를 읽었다.⁴⁰⁾ 23일은 巳時에, 24일은 辰時에 동일한 장소에서 독서하였으며, 내용은 23일에는 ‘公會齊侯于嬴’부터 ‘春秋善胥命’까지,⁴¹⁾ 24일은 앞의 내용을 읽은 후 ‘六月公會杞侯-故書’까지 읽고 토론하였다.⁴²⁾ 이 날 시독관 沈念祖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전옥서 참봉 李載運(재상의 자제를 위해 대리 글짓기), 진사 金樂道(부호에게 글을 팜)를 귀양 보내도록

『承政院日記』 正祖 1年 2月 5日 辛丑. 17/20. “丁酉二月初五日辰時, 上御興政堂。朝講。”

29) 『承政院日記』 正祖 1年 2月 18日 甲寅. 45/47

30) 『承政院日記』 正祖 1年 2月 21日 丁巳. 19/21.

『朝鮮王朝實錄』 正祖 1年 2月 21日(丁巳) 卷3. 冊44. p.653.

31) 『承政院日記』 正祖 1年 2月 22日 戊午. 30/31

32) 『承政院日記』 正祖 1年 3月 15日 辛巳. 3. 24/27.

『朝鮮王朝實錄』 正祖 1年 3月 15日(辛巳) 卷3. 冊44. p.655.

33) 『承政院日記』 正祖 1年 3月 16日 壬午. 35/36

34) 『承政院日記』 正祖 1年 3月 21日 丁亥. 26/29

35) 『承政院日記』 正祖 1年 3月 27日 癸巳. 30/34.

『朝鮮王朝實錄』 正祖 1年 3月 27日(癸巳) 卷3. 冊44. p.657.

36) 『承政院日記』 正祖 1年 4月 4日 己亥. 17/19

37) 『承政院日記』 正祖 1年 4月 12日 丁未. 20/22

38) 『承政院日記』 正祖 1年 4月 13日 戊申. 9/12

39) 『承政院日記』 正祖 1年 4月 17日 壬子. 35/37

40) 『承政院日記』 正祖 1年 4月 22日 丁巳. 26/31

41) 『承政院日記』 正祖 1年 4月 23日 戊午. 20/25

42) 『承政院日記』 正祖 1年 4月 24日 己未. 20/25

하였다.⁴³⁾ 이상으로 4월의 독서는 『春秋』란 책으로 4일, 12, 13, 17, 22, 23, 24일까지 7회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은 6일부터 주강을 시작하였다. 이 날 辰時에 시독관 沈念祖와 ‘侯使其弟年來’부터 ‘得於言意之表者也’까지 읽었으며,⁴⁴⁾ 15일엔 鄭志儉과 함께 ‘公狩于郎’에서 ‘責相之意’까지 읽고 문장의 의미를 논하였다.⁴⁵⁾ 25일엔 『春秋』 第三卷 ‘四年春正月狩于郎’에서 ‘見春秋責相之意也’까지 읽고, 다음 내용으로 시독관 沈有鎮과 ‘五年春正月甲戌’부터 ‘欲其深省之也’까지 읽었으며,⁴⁶⁾ 29일 午時에는 『春秋』 ‘葬陳桓公’에서 ‘聖人治國如指掌之說矣’까지 읽었다.⁴⁷⁾ 5월의 독서는 6일, 15일, 25일, 29일로 모두 4회였다. 6월에는 5일에 독서를 시작했으나 『승정원일기』에는 6월 전체의 기록이 없으며, 『조선왕조실록』에만 5일 주강으로 기록되어 있다.⁴⁸⁾ 그리고 7월은 휴강하였으며, 8월은 9일 辰時에 興政堂이 아닌 熙政堂으로 가서 시독관 洪明浩와 『春秋』 第六卷, ‘夏四月公會紀侯于郎’부터 ‘亂臣賊子懼’까지 읽고 문장의 의미를 들은 다음 참여한 경연지사, 검토관, 특진관, 참찬관 등과 독서토론에 들어갔다.⁴⁹⁾ 8월은 1회로 마감하고, 9월은 11일 辰時에 熙政堂에서 시독관 鄭志儉과 함께 『春秋』 第六卷, ‘八年春正月己卯烝’부터 ‘再烝見讀書也’까지 읽은 후 그 내용에 대한 뜻을 가지고 토론하였으며,⁵⁰⁾ 12일에는 승지 및 많은 생원, 진사 합격생들까지 모인 관계로 장소를 넓은 宣政殿으로 택하였다. 과거시험에 대한 문답과 부정행위자 처벌문제 등의 논의가 끝난 후 주강을 시작하였다.⁵¹⁾ 읽은 범위는 ‘天王使家父來聘’부터 ‘冬十月雨雪’까지로 시독관 鄭志儉과 함께하였다.⁵²⁾ 3일 후인 16일엔 午時에 熙政堂에서 시독관 李儒慶과 『春秋』 第六卷, ‘祭王來遂逆王后’부터 ‘卿逆公監之也’까지⁵³⁾ 17일은 巳時에 어제와 동일한 장소에서 ‘九年春紀季姜’부터 ‘京師者衆大之稱’까지,⁵⁴⁾ 18일은 ‘夏四月’부터 ‘夫已多乎道’까지 읽고 문의를 들은 후 참여자들과 토론하였다.⁵⁵⁾ 이상 9월의 독서는 11, 12, 16, 17, 18일로 5회를 실시하였다.

『春秋』를 중단하고 다음 읽어야 할 책으로 홍문관과 상의 후 『論語』로 결정하였으나 책이 부족하였다. 그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홍문관 소장본과 시강원 소장본을 사용하면 충분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경연관이 왕이 볼 책이 좋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정조는 조금도 걱정하지 말고

43) 『朝鮮王朝實錄』 正祖 1年 4月 24日(己未) 卷3. 冊44. p.663.

44) 『承政院日記』 正祖 1年 5月 6日 庚午. 28/33

45) 『承政院日記』 正祖 1年 5月 15日 己卯. 21/25

46) 『承政院日記』 正祖 1年 5月 25日 己丑. 25/27.

『朝鮮王朝實錄』 正祖 1年 5月 25日(己丑) 卷3. 冊44. p.670.

47) 『承政院日記』 正祖 1年 5月 29日 癸巳. 15/19

48) 『朝鮮王朝實錄』 正祖 1年 6月 5日(己亥) 卷3. 冊44. p.672.

49) 『承政院日記』 正祖 1年 8月 9日 壬寅. 12/14

50) 『承政院日記』 正祖 1年 9月 11日 癸酉. 41/45

51) 『朝鮮王朝實錄』 正祖 1年 9月 12日(甲戌) 卷4. 冊44. p.694. “甲戌/晝講。召見生進一等人, 生員康就宗以代入借述自服, 拔榜付刑曹勸配.”

52) 『承政院日記』 正祖 1年 9月 12日 甲戌. 26/31

53) 『承政院日記』 正祖 1年 9月 16日 戊寅. 13/15

54) 『承政院日記』 正祖 1年 9月 17日 己卯. 17/19

55) 『承政院日記』 正祖 1年 9月 18日 庚辰. 15/15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2일부터 읽을 책으로 『論語』가 선정되었다.⁵⁶⁾ 다음 날 22일 巳時에 <熙政堂>에서 경연관, 무신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시독관 李謙彬과 함께 『論語』 第一卷, ‘學而時習’ 부터 ‘過則勿憚改’까지 읽고 문의를 들었다. 독서방법은 첫 시간이라 先讀할 부분이 없어서 시독관이 먼저 읽고 다음으로 정조가 읽은 후 문장 해석에 들어간 방식이었다.⁵⁷⁾ 23일에는 어제 읽었던 부분을 정조가 먼저 읽고, 오늘 읽을 부분 ‘曾子曰慎終追遠’부터 ‘不失其親亦可宗也’까지는 시독관 李謙彬이 먼저 읽은 다음 정조가 읽었다.⁵⁸⁾ 이것으로 10월의 독서는 22일과 23일 2회로 끝났다. 11월에는 3일부터 시작하여 李謙彬과 『論語』 第一卷, ‘子曰君子食無求飽’부터 ‘患不知人也’까지 읽었으며,⁵⁹⁾ 이 날 “정조가 ‘不患人之不己知’와 ‘人不知而不慍’과는, 학문하는 사람의 造詣로 말할 적에 그 淺深의 정도가 어떻게 되는가?의 질문에 대한 검토관 南鶴聞이 답변하고, ‘貧而無諂’와 맹자가 말한 ‘視大人藐之’와는 어느 것이 낫고 어느 것이 못하겠는가?의 질문에 동지경연사 金鍾秀가 답변하는 등”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⁶⁰⁾ 동 4일에는 午時, 5일에는 巳時에 熙政堂에서 주장을 하였으며, 4일 시독관 沈有鎭과 『論語』 第一卷, ‘子曰爲政以德’부터 ‘不踰矩’까지,⁶¹⁾ 5일은 ‘孟懿子問孝’부터 ‘曾以是爲孝乎’까지 읽었다.⁶²⁾ 동 29일은 ‘子曰, 學而不思則罔’부터 ‘哀公問曰, 何爲則民服’까지 시독관 朴祐源과 함께 읽고 논의하였다.⁶³⁾ 결국 11월의 독서는 4일, 5일, 29일 등 3회 실시하였다. 12월 들어 주장에서의 독서는 2일 巳時에 시작하였다. 읽은 부분은 ‘季康子問使民’부터 ‘見義不爲無勇也’까지였다. 시독관 沈有鎭이 문장의 의미를 설명하였다.⁶⁴⁾ 이 날 주장을 시작하려하는데 형조에서 죄인심문을 알리자 정조는 새해 전에 경연을 열 날이 없으니 정지하지 말고 일이 없는 날에 심문하도록 했다.⁶⁵⁾ 이를 보면 정조가 독서에 상당히 관심 있는 것처럼 보이나 12월은 1회로 마감하였다. 1년을 월별로 봤을 때 그의 독서는 쉬는 날이 너무 많았다. 1년 총 39회에 그쳤다.

정조 2년(1778) 새해를 맞이하여 1월 7일 午時에 熙政堂으로 가서 시독관 沈有鎭과 『論語』, ‘子曰君子無所爭必也射乎’부터 ‘指其掌’까지 읽었으며,⁶⁶⁾ 11일 巳時엔 安聖彬과 함께 ‘祭如在’부터 ‘如不祭’까지 읽었다.⁶⁷⁾ 17일 巳時엔 장소를 誠正閣으로 바꿔 鄭宇淳과 함께 ‘王孫賈問曰’부터 ‘我愛其禮’까지 읽었으며,⁶⁸⁾ 22일은 다시 熙政堂에서 주장을 실시하였다. 이 날 주장에서는 시독관 嚴思晩과

56) 『承政院日記』 正祖 1年 10月 21日 癸丑. 8/20
 57) 『承政院日記』 正祖 1年 10月 22日 甲寅. 19/21
 58) 『承政院日記』 正祖 1年 10月 23日 乙卯. 18/21
 59) 『承政院日記』 正祖 1年 11月 3日 乙丑. 19/22
 60) 『朝鮮王朝實錄』 正祖 1年 11月 3日(乙丑) 卷4. 冊44. p.701.
 61) 『承政院日記』 正祖 1年 11月 4日 丙寅. 14/15
 62) 『承政院日記』 正祖 1年 11月 5日 丁卯. 17/20
 63) 『承政院日記』 正祖 1年 11月 29日 辛卯. 18/19
 64) 『承政院日記』 正祖 1年 12月 2日 甲午. 15/17
 65) 『朝鮮王朝實錄』 正祖 1年 12月 2日(甲午) 卷4. 冊44. p.705.
 66) 『承政院日記』 正祖 2年 1月 7日 戊辰. 13/13
 67) 『承政院日記』 正祖 2年 1月 11日 壬申. 33/35
 68) 『承政院日記』 正祖 2年 1月 17日 戊寅. 14/17

함께 『論語』 第二卷, ‘子曰事君盡禮’부터 ‘孰不知禮’까지 읽고 토론 한 바⁶⁹⁾ 그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정조: 關雎章에 ‘哀樂’ 두 글자는 과연 누구를 가리키어 말한 것이겠는가?

검토관 林耆喆: 文王을 가리킨 것인 듯합니다.

嚴思晩: 신의 생각에는 문왕을 가리키어 한 말이 아니라 ‘樂’을 위주로 한 말인 듯합니다.

정조: 첫 번에 한 말도 역시 좋은 것이다. 대개 사람이 이미 즐거워하면서도 음란하지 않았기 때문에 즐거워함이 따라서 음란하지 않았으니, 이는 性情의 올바름을 볼 수 있는 일이다.(후략)”⁷⁰⁾

이와 같이 정조의 주도로 토론이 이루어 졌으나 주장의 실시 빈도는 점차적으로 감소되었다. 동 23일에는 巳時에 熙政堂으로 가서 시독관 朴在源과 ‘子路魯太師’부터 ‘吾何以觀哉’까지,⁷¹⁾ 27일은 鄭宇淳과 ‘子曰里仁’부터 ‘蓋有之矣’까지,⁷²⁾ 28일에는 ‘子曰人之過也’부터 ‘子曰不患無位’까지 읽고 그 의미를 논하였다.⁷³⁾ 이상 1월의 독서는 7일, 11일, 17일, 22일, 23일, 27일, 28일까지 총 7회를 실시하였다. 2월의 주장은 4일부터 시작하였다. 巳時에 熙政堂에서 시독관 鄭宇淳과 ‘子曰參乎’부터 ‘數斯疎矣’까지 읽었으며,⁷⁴⁾ 8일에는 午時에 嚴思晩과 함께 ‘子謂公冶長’부터 ‘子貢問曰賜也何如’까지 읽고 토론하였다.⁷⁵⁾ 19일에는 巳時에 장소를 誠正閣으로 바뀌서 ‘或曰雍也’부터 ‘赤也何如’까지 읽었다. 시독관 嚴思晩이 문장의 의미를 설명한 후 토론하고⁷⁶⁾ 2월의 독서는 3회로 마감하였다. 3월에는 15일 辰時에 시작하여 장소를 다시 熙政堂으로 해서 시독관 林耆喆과 『論語』 第二卷, ‘子謂子貢曰, 女與回也孰愈’부터 ‘於予與改是’까지 읽고,⁷⁷⁾ 21일은 ‘子曰吾未見剛者’부터 ‘至其使民也義’까지 읽었다.⁷⁸⁾ 이와 같이 3월은 15일과 21일 2회로 끝났다. 상당히 저조한 독서량으로 판단된다. 4월의 독서도 역시 저조함을 알 수 있다. 4월 5일 巳時 熙政堂에서 시독관 黃昇源과 『論語』 <公冶長篇>, ‘晏平仲善與人’부터 ‘崔子弑其君’까지 읽고,⁷⁹⁾ 12일에는 장소를 誠正閣으로 하여 『論語』 第二冊[卷], ‘季文子三思而後行’부터 ‘某亦恥之’까지 읽고 그 뜻을 논의하였다.⁸⁰⁾ 그 후 8일 후인 20일에는 辰時에 熙政堂에서 ‘顏淵·季路侍’부터 ‘不如某之好學也’까지 읽고 시독관 沈有鎮에게 그 의미를 설명하도록 하였다.⁸¹⁾ 이와 같이 4월의 독서는 5일, 12일, 20일로 3회에 그쳤으며, 5월은 휴강하였다. 6월부터는 『論語』 第三卷을 시작하였다. 6월 5일 辰時에 李謙彬과 함께 ‘冉求曰非不悅子之道’부터

69) 『承政院日記』 正祖 2年 1月 22日 癸未. 21/25

70) 『朝鮮王朝實錄』 正祖 2年 1月 22日(癸未) 卷5. 冊45. p.4.

71) 『承政院日記』 正祖 2年 1月 23日 甲申. 17/20

72) 『承政院日記』 正祖 2年 1月 27日 戊子. 9/11

73) 『承政院日記』 正祖 2年 1月 28日 己丑. 18/21

74) 『承政院日記』 正祖 2年 2月 4日 乙未. 21/23

75) 『承政院日記』 正祖 2年 2月 8日 己亥. 20/23

76) 『承政院日記』 正祖 2年 2月 19日 庚戌. 14/17

77) 『承政院日記』 正祖 2年 3月 15日 乙亥. 39/43

78) 『承政院日記』 正祖 2年 3月 21日 辛巳. 28/31

79) 『承政院日記』 正祖 2年 4月 5日 甲午. 26/30

80) 『承政院日記』 正祖 2年 4月 12日 壬寅. 11/15

81) 『承政院日記』 正祖 2年 4月 20日 庚戌. 29/32

‘子曰知之者不如好之者’까지,⁸²⁾ 6일은 ‘子曰中人以上’부터 ‘君子博學於文’까지 읽고 해석하였다.⁸³⁾ 9일에는 시독관 鄭宇淳과 ‘子見南子’부터 ‘能近取譬’까지⁸⁴⁾ 14일에는 林濟遠과 ‘子之燕居, 申申如也’부터 ‘子曰暴虎馮河, 吾不與也章’까지 읽고 논하였다.⁸⁵⁾ 19일에는 李謙彬과 ‘子曰富而可求也’부터 ‘子曰假我數年章’까지 읽고,⁸⁶⁾ 20에는 鄭宇淳과 ‘子所雅言詩書’부터 ‘子曰天生德於予章’까지 읽었다.⁸⁷⁾ 이상 6월의 독서는 5일, 6일, 9일, 14일, 19일, 20일로 총 6회였다. 윤6월과 7월은 휴강하고, 8월 8일부터 다시 독서를 시작하였다. 책은 계속해서 『論語』를 읽었으며, 嚴思晩만과 함께 ‘子曰, 二三人’부터 ‘子曰蓋有不知而作之者’까지 읽었다.⁸⁸⁾ 다음 날 9일 辰時에 장소를 誠正閣으로 하여 시독관 沈念祖와 ‘互鄉難與言’부터 ‘巫馬期以告’까지 읽고 문의를 들었으며,⁸⁹⁾ 14일정도 휴강한 뒤 23일에는 전과 동일한 시간에 熙政堂에서 金憲과 『論語』 第三卷, ‘子與人歌’부터 ‘子溫而厲’까지 읽었다.⁹⁰⁾ 이 날 정조는 『論語』를 강독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치하면 불손하고 지나치게 검소하게 되면 고루해진다고 했는데(奢則不遜, 儉則固), 이章의 뜻이 매우 좋다. 외간에 대해서는 내가 상세히 모르겠으나, 궁내를 살펴보면 사치가 지금보다 더한 때가 없다. (중략) 어떻게 하면 이 폐단의 근원을 바로잡을 수 있겠는가?”⁹¹⁾

이는 독서의 효과인지 모른다. 글을 읽고 그 문장에서 사치를 근절하고자 하는 실천의 의지가 보였던 것이다. 그 후 1개월이 넘도록 주장은 없었다. 9월 휴강하고 10월 15일에야 巳時에 熙政堂으로 가서 앞전에 읽었던 泰伯篇, ‘子曰泰伯其可謂至德也已矣’부터 ‘君子篤於事親則民興於仁’까지 읽은 다음 시독관 李鼎揆가 下章, ‘曾子有疾’부터 ‘曾子曰可以托六尺之孤’까지 읽은 부분을 정조가 다시 읽었다.⁹²⁾ 정조가 읽은 부분은 『論語』 <泰伯篇> 제1장부터 2장까지였으며, 다음 읽은 부분은 3장부터였다. 19일에도 李鼎揆와 ‘曾子曰士不可以不弘毅’부터 ‘子曰三年學不至於穀’까지,⁹³⁾ 20일에는 ‘子曰篤信好學’부터 ‘子曰巍巍乎舜禹之有天下也而不與焉’까지,⁹⁴⁾ 21일에는 시간을 午時로 하여 ‘子曰, 大哉? 堯之爲君也’부터 ‘子曰, 禹吾無間然矣’까지 읽었다.⁹⁵⁾ 23일은 巳時에 熙政堂으로 가서 지난 21일에 읽었던 부분인 <泰伯篇> 마지막 장을 읽은 다음 시독관 宋煥億과 <子罕篇>

82) 『承政院日記』 正祖 2年 6月 5日 癸巳. 13/15

83) 『承政院日記』 正祖 2年 6月 6日 甲午. 20/22

84) 『承政院日記』 正祖 2年 6月 9日 丁酉. 19/22

85) 『承政院日記』 正祖 2年 6月 14日 壬寅. 18/19

86) 『承政院日記』 正祖 2年 6月 19日 丁未. 33/36

87) 『承政院日記』 正祖 2年 6月 20日 戊申. 15/18

88) 『承政院日記』 正祖 2年 8月 8日 乙丑. 19/19

89) 『承政院日記』 正祖 2年 8月 9日 丙寅. 22/23

90) 『承政院日記』 正祖 2年 8月 23日 庚辰. 37/37

91) 『朝鮮王朝實錄』 正祖 2年 8月 23日(庚辰) 卷6. 冊45. p.56.

92) 『承政院日記』 正祖 2年 10月 15日 辛未. 11/11

93) 『承政院日記』 正祖 2年 10月 19日 乙亥. 14/15

94) 『承政院日記』 正祖 2年 10月 20日 丙子. 22/24

95) 『承政院日記』 正祖 2年 10月 21日 丁丑. 16/16

‘子罕言利與命與仁’부터 ‘天之將喪斯文也’까지 읽었으며,⁹⁶⁾ 24일에도 ‘太宰問於子貢’부터 ‘牢曰子云吾不試故藝’까지 읽었다.⁹⁷⁾ 28일에는 시독관을 교체하여 李度默과 ‘子曰吾有知乎哉’부터 ‘欲罷不能’까지 읽고 참여한 검토관 李謙彬 및 경연관 들과 토론하였다.⁹⁸⁾ 이상 10월의 독서는 15일, 19일, 20일, 21일, 23일, 24일, 28일로 총 7회로 확인되었다. 11월은 8일 1회 실시하고 중단하였으며, 읽은 범위는 『論語』 第四卷, 子罕篇, ‘子疾病’부터 ‘雅頌各得其所’까지였다.⁹⁹⁾ 12월도 1회로 15일 午時에 시작하여 시독관 沈念祖와 ‘子曰出則事公卿’부터 ‘子謂顏淵曰惜乎吾見其進也’까지 읽은 다음¹⁰⁰⁾ ‘子在川上章, 言道體之不息(‘공자가 시냇가에 서서’라고 한 章은 道體가 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 것이고)’부터 열띤 토론을 벌였다.¹⁰¹⁾

이상과 같이 정조 2년의 독서 일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1월 7회, 2월 3회, 3월 2회, 4월 3회, 5월 휴강, 6월 6회, 7월 휴강, 8월 3회, 9월 휴강, 10월 7회, 11월 1회, 12월 1회로 총 33회로 나타났다.

정조 3년(1779)에는 1월 9일 辰時에 주강을 시작하였다. 이날은 대신 및 비국당상들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많은 관리들이 참여한 관게로 장소를 <宣政殿>으로 하였다. 시독관은 金憲로 정조와 독서한 범위는 ‘子曰衣弊襤袍’부터 ‘夫何遠之有’까지 읽고 그 문의에 대해서 토론하였다.¹⁰²⁾ 동 20일 巳時에 熙政堂으로 가서 시독관 李泰永과 앞에 읽었던 『論語』 第五卷 ‘孔子於鄉黨’부터 ‘賓不顧’까지 읽고 다음 범위인 ‘入公門鞠躬如也’부터 ‘復其位蹒跚如也’까지 읽었다.¹⁰³⁾ 이날 주강하기 전에, 정조는

“朝講한 뒤에 주강을 행할 경우 전에는 품을 받아 다시 읽는 규정이 없는데 이제 스스로 중지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니, 시독관 李泰永이 말하기를, “館吏에게 물어보니 옛날의 법규가 이러했다고 하였습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뒤로는 전례를 널리 상고하여서 하도록 하라.”하고, 이어 이태영을 추고하라고 명하였다.”¹⁰⁴⁾

위의 문장에서 ‘조강 한 뒤’란 문구는 승정원일기에 석강 후로 기재되어 있다.¹⁰⁵⁾ 이후 이태영은 추고를 당하고 5년 후 8년(1784) 1월에 검토관으로 다시 경연에 참여한다. 1월 23일 午時에 熙政堂으로 가서 지난 번 읽었던 『論語』 第五卷 ‘入公門鞠躬如也,’부터 ‘復其位蹒跚如也’까지 선독하고 시독관 南鶴聞과 다음 범위인 ‘執圭鞠躬如也,’부터 ‘朝服而朝’까지 읽은 후 儉素·恭敬心·慎獨 등의 주제

96) 『承政院日記』 正祖 2年 10月 23日 己卯. 16/17

97) 『承政院日記』 正祖 2年 10月 24日 庚辰. 18/18

98) 『承政院日記』 正祖 2年 10月 28日 甲申. 12/14

99) 『承政院日記』 正祖 2年 11月 8日 甲午. 17/17

100) 『承政院日記』 正祖 2年 12月 15日 辛未. 27/28

101) 『朝鮮王朝實錄』 正祖 2年 12月 15日(辛未) 卷6. 冊45. p.78.

102) 『承政院日記』 正祖 3年 1月 9日 甲午. 22/23

103) 『承政院日記』 正祖 3年 1月 20日 乙巳. 14/14

104) 『朝鮮王朝實錄』 正祖 3年 1月 20日(乙巳) 卷7. 冊45. p.87.

105) 『承政院日記』 正祖 3年 1月 20日 乙巳. 14/14. “上曰, 夕講後行晝講, 則本無前受音更讀之規, 而今番前受音自止, 亦爲付進, 何也? 泰永曰, 問於館吏, 則故規如此云, 故未及詳察, 仍爲付進自止矣。上曰, 此後則博考前例而爲之, 可也。”

로 토론하였다.¹⁰⁶⁾ 결국 1월의 독서는 9일, 20일, 23일 3회로 끝났으며, 2월은 휴강하였다. 3월에는 12일 巳時에 熙政堂으로 가서 앞서 읽었던 내용 ‘席不正不坐’부터 ‘未達不敢嘗’까지 읽고 시독관 嚴思晩과 ‘廐焚, 子退朝曰,’부터 ‘非祭肉不拜’까지 읽었다.¹⁰⁷⁾ 이 날 嚴思晩은 <鄉堂篇>을 위주로 설명하였다. 검토관 沈煥之는 <鄉堂篇>을 통해 정조의 독서 후의 행위를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전하께서 이 글을 통하여 孔子를 배우신다면 누가 감히 막겠습니까? 그런데 政事를 하는데 있어서 공자를 배운 증험을 볼 수가 없으니, 이는 전하께서 알고서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알고서도 행하지 않는다면 다만 堯·舜의 정치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漢·宋의 規模처럼 하는 것도 또한 따라갈 수 없습니다.”¹⁰⁸⁾

이에 정조는 좋은 말이라고 칭찬하였으나 내심은 상당히 불쾌했을 것으로 보인다. 3월 1회만 하고 이 후로 주강을 20여일 이상을 열지 않았다. 4월 4일 辰時에 熙政堂으로 가서 앞서 읽었던 부분 『論語』 第五卷 ‘寢不尸’부터 ‘三嗅而作’까지 읽은 다음 ‘子曰先進’부터 ‘兄之子妻之’까지 읽었으며,¹⁰⁹⁾ 17일에도 4일에 읽었던 내용 ‘子曰先進’부터 ‘兄之子妻之’까지 읽은 다음 ‘季康子問弟子孰爲好學’부터 ‘非我也, 夫二三子也’까지 읽었다.¹¹⁰⁾ 24일에도 ‘此子路問事鬼章也’ 부분을 읽고 토론하였다.¹¹¹⁾ 4월 4일, 17일, 24일 3회를 함께한 시독관은 鄭淵淳이었다. 5월과 6월은 휴강하였다. 다만 『朝鮮王朝實錄』에는 주강으로 기록되어 있으나¹¹²⁾ 『승정원일기』에는 召對로 기재되어 있다.¹¹³⁾ 독서 자료로 보면 주강에서 읽고 있는 책은 『論語』인데 이날 읽은 책은 『近思錄』인 것과 또한 주강에는 승지들이 참여해야 하는데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봐서 이날 경연은 정식 주강이 아닌 召對로 보인다. 7월에도 29일 辰時에 誠正閣에서 權以綱과 ‘子路·曾皙’부터 ‘孰能爲之大’까지 1회만 독서하고 마감하였으며,¹¹⁴⁾ 8월은 28일과 29일 2회 실시하였다. 2회 모두 辰時에 誠正閣에서 嚴思晩과 함께하였으며, 독서 부분은 28일은 한달 전 7월 29일에 읽었던 내용 ‘子路·曾皙’부터 ‘孰能爲之大’까지 다시 읽고 다음 내용인 ‘顏淵問仁’부터 ‘請事斯語’까지 읽었으며,¹¹⁵⁾ 29일은 어제 읽었던 내용을 읽은 다음 ‘司馬牛問仁’부터 ‘可謂遠也已矣’까지 읽고 시독관의 해설을 들었다.¹¹⁶⁾

106) 『承政院日記』 正祖 3年 1月 23日 戊申. 18/18

『朝鮮王朝實錄』 正祖 3年 1月 23日(戊申) 卷7. 冊45. p.87.

107) 『承政院日記』 正祖 3年 3月 12日 丙申. 15/14

108) 『朝鮮王朝實錄』 正祖 3年 3月 12日(丙申) 卷7. 冊45. p.103.

109) 『承政院日記』 正祖 3年 4月 4日 己未. 26/28

110) 『承政院日記』 正祖 3年 4月 17日 辛未. 16/17

111) 『承政院日記』 正祖 3年 4月 24日 己卯(戊寅). 12/12

『朝鮮王朝實錄』 正祖 3年 4月 24日(戊寅) 卷7. 冊45. p.106.

112) 『朝鮮王朝實錄』 正祖 3年 6月 12日(甲子) 卷7. 冊45. p.107.

113) 『承政院日記』 正祖 3年 6月 12日 甲子. 24/26. “己亥六月十二日午時, 上御誠正閣. 召對入侍時(중략) … 行元讀, 自近思錄第六卷伊川先生曰, 止況聖人乎.”

114) 『承政院日記』 正祖 3年 7月 29日 辛亥. 33/35

115) 『承政院日記』 正祖 3年 8月 28日 己卯. 25/26

116) 『承政院日記』 正祖 3年 8月 29日 庚辰. 17/16

경연의 개설여부는 항상 하루 전날 승지가 문의한다. 어제도 우승지 徐有防이 경연의 유무를 묻자 주장만 하겠다고 하여 준비하였다.¹¹⁷⁾ 9월의 주장에서의 독서는 2일부터 시작하여 24일까지 간간히 읽었다. 2일엔 시독관 柳誼, 검토관 沈樂洙 등과 ‘子貢問政’부터 ‘君熟與足’까지,¹¹⁸⁾ 3일엔 ‘子張問崇德’부터 ‘小人反是’까지 읽었다.¹¹⁹⁾ 5일에는 沈煥之와 ‘季康子問政’부터 ‘在家必聞’까지 읽었으며,¹²⁰⁾ 6일은 金翊休와 ‘樊遲從遊’부터 ‘以友輔仁’까지 읽었다.¹²¹⁾ 10일은 주장의 기록만 있으며, 14일은 ‘定公問一言’부터 ‘惠在其中’까지,¹²²⁾ 15일은 ‘樊遲問仁’부터 ‘同而不和’까지,¹²³⁾ 16일은 ‘子貢問曰鄉人’부터 ‘是謂棄之’까지,¹²⁴⁾ 17일은 ‘憲問恥’부터 ‘不必有仁’까지 읽었다. 14일부터 17일까지 시독관은 嚴思晩이었으며, 시간은 辰時, 장소는 誠正閣이었다.¹²⁵⁾ 18일은 午時, 誠正閣에서 沈煥之와 ‘南宮适問於孔子’부터 ‘沒齒無怨言’까지,¹²⁶⁾ 19일은 巳時에 ‘子曰貧而無怨’부터 ‘吾不信也’까지 읽었다.¹²⁷⁾ 20일 午時, 21일은 辰時에 시독관 金翊休와 ‘晉文公譎而不正’부터 ‘小人下達’까지 읽었다.¹²⁸⁾ 그리고 24일에는 정조가 21일에 읽었던 ‘子言衛靈公之無道也’부터 ‘小人下達’까지 읽은 다음, 시독관 柳孟養과 ‘古之學者爲己’부터 ‘先覺者是何人乎’까지 읽었다.¹²⁹⁾ 이상으로 9월의 독서를 살펴본바 2일, 3일, 5일, 6일, 10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4일 등 총 14회로 가장 많은 독서회수를 보였다. 10월의 주장은 13일과 23일 2회로 李儒慶과 ‘微生畝’부터 ‘欲速成者也’까지 읽고 그 의미를 들은 뒤 독서토론을 하였다.¹³⁰⁾ 11월은 8일 辰時 誠正閣에서 趙尙鎮과 ‘子張問行’에서 ‘殺身以成仁’까지,¹³¹⁾ 9일은 李儒慶과 ‘子貢問爲仁’부터 ‘知柳下惠之賢而不相立也’까지 읽었으며,¹³²⁾ 19일에는 ‘子曰躬自厚’부터 ‘不以人廢言’까지 읽고 논의하였다.¹³³⁾ 26일은 巳時에 權以綱과 ‘子曰, 吾嘗終日不食’에서 ‘未見蹈仁而死者也’까지,¹³⁴⁾ 28일에는 辰時에 ‘子曰當仁不讓於師’부터 ‘相師之道也’까지 읽었다.¹³⁵⁾ 이에 11월의 독서는 8일, 9일, 19일, 26일, 28일로 총 5회로 마무리하였다.

117) 『承政院日記』 正祖 3年 9月 1日 壬午. 2/24. “徐有防啓曰, 明日常參·經筵, 取稟. 傳曰, 只畫講.”

118) 『承政院日記』 正祖 3年 9月 2日 癸未. 22/23

119) 『承政院日記』 正祖 3年 9月 3日 甲申. 18/18

120) 『承政院日記』 正祖 3年 9月 5日 丙戌. 16/17

121) 『承政院日記』 正祖 3年 9月 6日 丁亥. 19/20

122) 『承政院日記』 正祖 3年 9月 14日 乙未. 20/22

123) 『承政院日記』 正祖 3年 9月 16日 丁酉(丙申). 10/11.

『朝鮮王朝實錄』 正祖 3年 9月 15日(丙申) 卷7. 冊45. p.120.

124) 『承政院日記』 正祖 3年 9月 16日 丁酉. 19/20

125) 『承政院日記』 正祖 3年 9月 17日 戊戌. 15/16

126) 『承政院日記』 正祖 3年 9月 18日 己亥. 22/24

127) 『承政院日記』 正祖 3年 9月 19日 庚子. 29/28

128) 『承政院日記』 正祖 3年 9月 20日 辛丑. 23/23 ; 9月 21日 壬寅. 17/18.

129) 『承政院日記』 正祖 3年 9月 24日 癸巳.[乙巳]. 17/18

130) 『承政院日記』 正祖 3年 10月 13日 癸亥. 18/20 ; 10月 23日 癸酉 21/22

131) 『承政院日記』 正祖 3年 11月 8日 戊子. 22/24

132) 『承政院日記』 正祖 3年 11月 9日 己丑. 41/43

133) 『承政院日記』 正祖 3年 11月 19日 己亥. 23/25

134) 『承政院日記』 正祖 3年 11月 26日 丙午. 18/19

정조 3년의 독서는 1월 3회, 2월 휴강, 3월 1회, 4월 3회, 5월 휴강, 6월 휴강, 7월 1회, 8월 2회, 9월 14회, 10월 2회, 11월 5회, 12월 휴강으로 총 31회를 실시하였다. 휴강이 4개월이고 독서한 달은 9월 14회로 집중적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조 4년(1780) 주장에서의 독서는 1월 9일 午時, 誠正閣에서 시독관 李儒慶과 함께하였다. 책은 『論語』로 범위는 ‘季氏將伐顓臾’부터 ‘而謀動干戈’까지 읽었다.¹³⁶⁾ 14일 巳時에는 嚴思晩과 ‘孔子曰, 天下有道’에서 ‘友便佞損矣’까지,¹³⁷⁾ 16일 辰時에는 姜忱과 ‘孔子曰見善如不及’부터 ‘邦人稱之亦曰君夫人’까지,¹³⁸⁾ 22일 辰時에는 嚴思晩과 ‘言孔子欲見陽貨’부터 ‘前戲耳’까지,¹³⁹⁾ 23일 午時, 李儒慶과 ‘子曰由也女聞六言六蔽矣乎’부터 ‘多識於鳥獸草木之名’까지,¹⁴⁰⁾ 27일 辰時에는 장소를 熙政堂으로 옮겨서 姜忱과 함께 ‘子曰鄉原德之賊也’부터 ‘子曰惡紫之亂朱也章’까지 읽었다.¹⁴¹⁾ 결국 1월의 독서 회수는 9일, 14일, 16일, 22일, 23일, 27일로 총 6회였다. 2월의 첫 독서는 13일 午時에 誠正閣에서 하였으며, 시독관은 李儒慶으로 ‘古者民有三疾’부터 ‘取瑟而歌使之聞之’까지 하였으며,¹⁴²⁾ 19일은 辰時에 동일한 장소에서 趙鼎鎮과 ‘宰我問三年之喪’부터 ‘有三年之愛於其父母乎’까지,¹⁴³⁾ 20일은 金履禧와 ‘子曰飽食終日’부터 ‘其終也已’까지,¹⁴⁴⁾ 21일은 卯時에 誠正閣으로 가서 金履禧와 ‘微子去之’부터 ‘孔子行’까지 읽었다.¹⁴⁵⁾ 2월엔 13일, 19일, 20일, 21일로 4회 독서하였다. 3월에는 3일 辰時에 誠正閣에서 徐鼎修와 ‘逸民伯夷·叔齊’부터 ‘周有八士’까지 읽었다.¹⁴⁶⁾ 이 날 지경연사 蔡濟恭이 정조의 독서태도에 대해 말하기를,

“한 글자를 잘못 읽는 것은 깊은 뜻을 음미하고 체험하는 공부에 손상될 것이 없기는 하나, 하나에 전념하고 잡념을 두지 않는 뜻으로 말하면 조금 부족한 것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¹⁴⁷⁾

글자 하나라도 제대로 읽어야 한다는 충고이기도 하다. 이를 정조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이 후 휴강한 뒤 22일에야 주강을 열어 李時秀와 『論語』 門人小子章 ‘小人之過’부터 ‘有始有卒者其惟聖人乎’까지 읽은 다음 그 의미에 대해서 경연사 黃景源, 특진관 鄭昌聖 등과 토론하였다.¹⁴⁸⁾ 3월의

135) 『承政院日記』 正祖 3年 11月 28日 戊申. 14/16

136) 『承政院日記』 正祖 4年 1月 9日 戊子. 25/25

137) 『承政院日記』 正祖 4年 1月 14日 癸巳. 41/42

138) 『承政院日記』 正祖 4年 1月 16日 乙未. 26/27

139) 『承政院日記』 正祖 4年 1月 22日 辛丑. 24/28

140) 『承政院日記』 正祖 4年 1月 23日 壬寅. 26/28

141) 『承政院日記』 正祖 4年 1月 27日 丙午. 19/21

142) 『承政院日記』 正祖 4年 2月 13日 壬戌. 36/39

143) 『承政院日記』 正祖 4年 2月 19日 戊辰. 26/25

144) 『承政院日記』 正祖 4年 2月 20日 己巳. 32/34

145) 『承政院日記』 正祖 4年 2月 21日 庚午. 47/51

146) 『承政院日記』 正祖 4年 3月 3日 壬午. 33/35

147) 『朝鮮王朝實錄』 正祖 4年 3月 3日(壬午) 卷9. 冊45. p.155.

148) 『承政院日記』 正祖 4年 3月 22日 辛丑. 29/30

독서는 3일과 22일 2회로 마쳤다. 4월의 독서는 8일부터 시작하였으나 8일과 15일에 실시한 독서 내용은 기록이 없으며, 16일은 辰時에 誠正閣에서 시독관 姜忱과 함께 『論語』 第七卷, ‘叔孫武叔毀仲尼’부터 ‘何其可及也’까지,¹⁴⁹⁾ 17일은 巳時에 姜彝正과 ‘堯曰咨爾舜’부터 ‘公則說’까지 읽었다.¹⁵⁰⁾ 18일은 주장한 뒤 文武臣殿講관계로 상세한 내용이 생략되었다. 이상으로 4월의 독서회수는 8일, 15일, 16일, 17일, 18일로 5회였음을 알 수 있다. 5월에는 12일 辰時에 誠正閣에서 규장각 각신까지 출석시켜 주장을 하였다. 이 날 정조는 지난 번 읽었던 ‘物格而后’부터 ‘別爲序次如左’까지 읽고, 다음 진도로 시독관 姜忱이 읽은 ‘康誥曰, 克明德,’부터 ‘釋明明德一編’까지 읽었다.¹⁵¹⁾ 다음 날 교리 姜沈은 주장 때 차대와 함께 하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져 임금의 몸이 피곤하고 자리도 비좁으니 3강 때는 차대를 생략하도록 건의하였으나 지켜지지는 않았다.¹⁵²⁾ 5월 26일에는 李敬一과 ‘湯之盤銘’부터 ‘右傳之三章’까지,¹⁵³⁾ 27일 卯時에는 ‘詩云邦畿千里’에서 ‘右傳之五章’까지 읽고 그 의미에 대해 토론하였으며,¹⁵⁴⁾ 28일 辰時에는 姜忱과 ‘子曰, 聽訟吾猶人也, 必也使無訟’부터 ‘知之至也’까지,¹⁵⁵⁾ 29일에도 姜忱과 ‘所謂誠其意’부터 ‘右傳之六章’까지 읽었다.¹⁵⁶⁾ 5월의 독서는 12일, 26일, 27일, 28일로 4회 실시하였다. 6월의 주장은 2일 卯時에 誠正閣에서 시작하였다. 卯時면 5시-7시이므로 조강이라 할 수 있는데, 규정상 조강은 大臣과 備局堂上 등이 참여하는데, 이 날은 경연관, 종신, 무신 등이 참여한 것으로 봐서 주장임이 확실하다. 독서는 시독관 姜忱과 ‘所謂脩身在正其心’부터 ‘右傳之八章’까지,¹⁵⁷⁾ 3일에는 ‘所謂治國必先齊其家’부터 ‘右傳之九’까지¹⁵⁸⁾ 읽었으며, 6일 卯時에는 시독관 李時秀와 ‘康誥曰惟命不于常’부터 ‘驕泰以失之’까지,¹⁵⁹⁾ 9일에는 辰時에 李敬一과 ‘生財有大道’부터 ‘右傳之十章’까지 읽고 그 의미를 들었다.¹⁶⁰⁾ 6월의 독서는 2일, 3일, 6일, 9일까지 총 4회였다. 6월 9일 후 중단되었던 주장은 7월 26일 卯時에 시작하였다. 읽을 책은 『孟子』로 정하고 宣政殿에서 시독관 權以綱과 ‘孟子見梁惠王’부터 ‘何必曰利’까지 읽었으며,¹⁶¹⁾ 28일 辰時에는 동일 장소에서 ‘孟子見梁惠王立於沼上’부터 ‘豈能獨樂哉’까지,¹⁶²⁾ 29일은 장소를 寶慶堂으로 옮겨 ‘梁惠王曰寡人之於國’부터 ‘天下之民至焉’까지,¹⁶³⁾ 30일은 다시 宣政殿에서 李鼎運과 ‘梁惠王曰, 寡人願安承

『朝鮮王朝實錄』 正祖 4年 3月 22日(辛丑) 卷9. 冊45. p.159.

149) 『承政院日記』 正祖 4年 4月 16日 甲子. 37/37

150) 『承政院日記』 正祖 4年 4月 17日 乙丑. 26/28

151) 『承政院日記』 正祖 4年 5月 12日 庚寅. 16/15

152) 『朝鮮王朝實錄』 正祖 4年 5月 22日(庚子) 卷9. 冊45. p.167.

153) 『承政院日記』 正祖 4年 5月 26日 甲辰. 15/15

154) 『承政院日記』 正祖 4年 5月 27日 乙巳. 21/20

155) 『承政院日記』 正祖 4年 5月 28日 丙午. 19/18

156) 『承政院日記』 正祖 4年 5月 29日 丁未. 34/33

157) 『承政院日記』 正祖 4年 6月 2日 己酉. 31/32

158) 『承政院日記』 正祖 4年 6月 3日 庚戌. 21/23

159) 『承政院日記』 正祖 4年 6月 6日 癸丑. 27/28

160) 『承政院日記』 正祖 4年 6月 9日 丙辰. 28/29

161) 『承政院日記』 正祖 4年 7月 26日 壬寅. 32/35

162) 『承政院日記』 正祖 4年 7月 28日 甲辰. 21/23

教’부터 ‘如之何其使斯民飢而死也’까지 읽고 그 의미를 들었다.¹⁶⁴⁾ 이와 같이 7월의 독서는 26일, 28일, 29일, 30일까지 4회를 실시하였다. 6월 2일 辰時에 宣政殿에서 시독관 李鼎運과 ‘孟子, 梁惠王曰晉國天下莫強焉’부터 ‘王請勿疑’까지,¹⁶⁵⁾ 11일에도 宣政殿에서 權以綱과 ‘齊宣王問曰齊桓·晉文之事’부터 ‘遠庖廚也’까지 읽었다. 이 날은 앞에 읽었던 부분을 읽지 않았다.¹⁶⁶⁾ 결국 8월의 독서는 2일과 11일 2회로 끝났다. 9월은 6일부터 주강을 시작하였으며, 9월 11일은 辰時에 宣政殿에서 洪文泳과 함께 孟子, ‘曰不爲者與不能者之刑’부터 ‘將以求吾所大欲’까지 읽었다. 이 날 同知事 徐浩修는 홍문영이 진강할 때 토 하나를 잘못했다하여 책임을 묻도록 하였다.¹⁶⁷⁾ 14일은 朴天衡과 『孟子』, ‘曰王之所大欲可得聞歟’부터 ‘其如是孰能禦之’까지,¹⁶⁸⁾ 24일은 李兢淵과 ‘今王發政施仁’부터 ‘盍反其本矣’까지 읽었다.¹⁶⁹⁾ 27일과 28일 『조선왕조실록』에는 주강을 실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승정원일기』에는 정지로 되어 있다. 그러나 27일자 서유방의 질문에 내일(28일) 주강만 한다고 했는데, 정지로 기록되어 있다.¹⁷⁰⁾ 이상 실록의 기록에 의한 9월의 독서회수는 6일, 11일, 14일, 24일, 27일, 28일로 총 6회이다. 10월은 13일 辰時에 宣政殿에서 주강을 열었다. 책은 역시 『孟子』였으며, 같이 읽은 시독관은 柳孟養으로 ‘齊宣王見孟子於雪宮’부터 ‘一遊一豫爲諸侯度’까지 읽었으며,¹⁷¹⁾ 18일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朴天行과 ‘齊宣王問曰, 人皆謂我毀明堂’부터 ‘王如好色, 與百姓同之’까지,¹⁷²⁾ 19일은 洪明浩와 ‘孟子謂齊宣王曰王之臣’부터 ‘王顧左右而言他’까지 읽고 그 문의에 대해 토론하였다.¹⁷³⁾ 21일은 주강은 했으나 상세내용은 기록이 없다. 따라서 10월의 독서는 13일, 18일, 19일, 21일로 4회 실시하였다. 11월은 4일부터 시작하였다. 4일 辰時에 誠正閣으로 옮겨 柳孟養과 ‘齊宣王問曰, 湯放桀武王伐紂’부터 ‘孟子對曰, 於傳有之之章止之’까지 읽었으며,¹⁷⁴⁾ 11일은 洪明浩와 ‘孟子見齊宣王曰, 爲巨室’부터 ‘教玉人彫琢玉哉’까지,¹⁷⁵⁾ 19일은 巳時에 趙鼎鎮과 ‘孟子齊人伐燕取之章’을 읽었으며,¹⁷⁶⁾ 22일 辰時에는 역시 趙鼎鎮과 ‘齊人伐燕勝之’부터 ‘王速出令’까지,¹⁷⁷⁾ 23일은 洪明浩와 ‘孟子鄒與魯闕章’을 읽었다.¹⁷⁸⁾ 그리고 28일 巳時에는 다시 趙鼎鎮과

163) 『承政院日記』 正祖 4年 7月 29日 乙巳. 34/36

164) 『承政院日記』 正祖 4年 7月 30日 丙午. 23/25

165) 『承政院日記』 正祖 4年 8月 2日 戊申. 39/40

166) 『承政院日記』 正祖 4年 8月 11日 丁巳. 23/27

167) 『承政院日記』 正祖 4年 9月 11日 丙戌. 32/33

168) 『承政院日記』 正祖 4年 9月 14日 己丑. 56/59

169) 『承政院日記』 正祖 4年 9月 24日 己亥. 27/28

170) 『朝鮮王朝實錄』 正祖 4年 9月 28日(癸卯) 卷10. 冊45. p.185. “癸卯/晝講.”

『承政院日記』 正祖 4年 9月 27日 壬寅. 4/35. “徐有防啓曰, 明日常參·經筵, 取稟. 傳曰, 只晝講.”

『承政院日記』 正祖 4年 9月 28日 癸卯. 1/25. “上在昌德宮. 停常參·經筵.”

171) 『承政院日記』 正祖 4年 10月 13日 戊午. 28/30

172) 『承政院日記』 正祖 4年 10月 18日 癸亥. 38/37

173) 『承政院日記』 正祖 4年 10月 19日 甲子. 16/16

174) 『承政院日記』 正祖 4年 11月 4日 戊寅. 16/18

175) 『承政院日記』 正祖 4年 11月 11日 乙酉. 42/45

176) 『承政院日記』 正祖 4年 11月 19日 癸巳. 28/29

함께 ‘孟子滕文公問曰，齊人將築薛章’을 읽고 그 문의에 대해 토론하였다.¹⁷⁹⁾ 11월의 독서회수는 4일, 11일, 19일, 22일, 23일, 28일까지 총 6회였으며, 12월은 휴강하였다. 4년의 독서는 47회였다.

정조 5년(1781)에는 1월 휴강하고 2월 11일부터 주강을 실시하였다. 그 날 辰時에 誠正閣으로 가서 시독관 李兢淵과 『孟子』, ‘若是則弟子之惑滋甚’부터 ‘曰文王何可當也章’까지,¹⁸⁰⁾ 18일은 洪文泳과 ‘齊人有言曰’부터 ‘當今之時章’,¹⁸¹⁾ 다음 날 19일은 ‘公孫丑問曰夫子加齊之卿相’부터 ‘孟施舍似曾子章’까지 읽었으며,¹⁸²⁾ 21일은 李時秀와 ‘孟施舍似曾子’부터 ‘無暴其氣’까지 읽고 그 의미에 대해 토론하였다.¹⁸³⁾ 그리고 29일은 洪明浩와 함께 『孟子』, ‘既曰志至焉氣次焉’부터 ‘敢問夫子惡乎長章’까지 읽고 浩然之氣에 대해서 논하였다.¹⁸⁴⁾ 이와 같이 정조는 2월에 『孟子』란 책으로 11일, 18일, 19일, 21일, 29일까지 총 5회 독서를 한 것이다.

3월 들어 주강은 거의 없었다. 7일과 21일 2회로 막을 내렸다. 7일은 巳時에 誠正閣으로 가서 李敬一과 ‘必有事焉而勿正’부터 ‘必從吾言矣’까지 읽었으며,¹⁸⁵⁾ 21일에는 辰時에 李時秀와 ‘伯夷·伊尹’부터 ‘是則同’까지 읽은 다음 3聖人의 優劣에 대해서 논하고¹⁸⁶⁾ 며칠 휴강하였다. 4월 들어 5일부터 주강을 열어 3월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시독관 柳孟養과 ‘孟子曰，以力假仁者’부터 ‘無思不服此之謂也’까지 읽었으며,¹⁸⁷⁾ 12일, 13일까지 2일 연속 주강을 연 후 29일 하루 열고 4월 독서를 마감하였다. 12, 29일의 독서내용은 기록이 없으나 13일은 辰時에 誠正閣으로 가서 李時秀와 ‘孟子曰，尊賢使能’부터 ‘然而不王者未之有也’까지 읽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¹⁸⁸⁾ 이상 4월 독서 회수를 보면, 5, 12, 13, 29일로 4회로 나타났다. 14일도 주강을 열어 독서했다는 기록이 『일기』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실록』에는 없어서 회수에서 제외하였다. 4월 29일 독서 후 5월부터 윤5월 25일까지 주강을 정지하여 독서범위는 알 수 없다. 윤5월 26일 辰時에는 장소를 涵仁亭으로 바꾸어 시독관 徐有成과 ‘孟子曰，矢人猶恐不傷人’부터 ‘仁者如射章’까지 읽은 다음¹⁸⁹⁾ 6월, 7월 2개월간 휴강하였다. 8월 10일 辰時에 誠正閣으로 가서 오랜만에 주강을 열어 앞서 읽었던 부분을 읽은 후 다음과 같이 경연관들에게 부탁하였다.

177) 『承政院日記』 正祖 4年 11月 22日 丙申. 26/27

178) 『承政院日記』 正祖 4年 11月 23日 丁酉. 32/35

179) 『承政院日記』 正祖 4年 11月 28日 壬寅. 23/23

180) 『承政院日記』 正祖 5年 2月 11日 甲寅. 30/31

181) 『承政院日記』 正祖 5年 2月 18日 辛未[辛酉]. 17/20.

『朝鮮王朝實錄』 正祖 5年 2月 18日(辛酉) 卷11. 冊45. p.213.

182) 『承政院日記』 正祖 5年 2月 19日 壬戌. 25/30

183) 『承政院日記』 正祖 5年 2月 21日 甲子. 16/19

184) 『承政院日記』 正祖 5年 2月 29日 壬申. 47/48

185) 『承政院日記』 正祖 5年 3月 7日 庚辰. 35/35

186) 『承政院日記』 正祖 5年 3月 21日 甲午. 26/28

187) 『承政院日記』 正祖 5年 4月 5日 戊申. 15/16

188) 『承政院日記』 正祖 5年 4月 13日 丙辰. 11/11

189) 『承政院日記』 正祖 5年 윤5月 26日 戊辰. 44/47

“근래에 경연에서 강독하는 소리가 거의 옛날과 같다. 오히려 召對때만 못하여 매우 개탄스럽다. 이후에는 반드시 옛 규정에 따라 읽어주는 것이 좋겠다.”

이 말을 마친 후 시독관 鄭東浚과 ‘孟子曰天時’부터 ‘戰必勝矣’까지 읽었으나¹⁹⁰⁾ 8월은 이 날 1회 독서 후 9월까지 중단하였다. 10월에도 17일 辰時, 誠正閣에서 鄭淵淳과 ‘孟子將朝王’부터 ‘造於朝章’까지 읽고 12월까지 중단하였다.¹⁹¹⁾ 다만, 실록에는 11월 5일 주장으로 기록되어 있으나¹⁹²⁾ 승정원일기에는 조강으로 기록되어 있다.¹⁹³⁾ 이 날 영상 徐命禧가 참여한 것과 11월 4일 일기 기록에도 조강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면¹⁹⁴⁾ 조강이 확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조 5년의 독서회수를 보면, 1월 휴강, 2월 5회, 3월 2회, 4월 4회, 5월 휴강, 윤5월 1회, 6월 휴강, 7월 휴강, 8월 1회, 9월 휴강, 10월 1회, 11월 휴강, 12월 휴강으로 총 14회의 독서회수를 보였다.

정조 6년(1782)에는 1월 4일 辰時, 誠正閣에서 주강을 열어 시독관 李敬一과 『孟子』, ‘故將有爲之君’부터 ‘湯之於伊尹章’까지,¹⁹⁵⁾ 13일은 朴天行과 ‘陳臻問曰’부터 ‘若於齊則未有處也章’까지 읽었으며,¹⁹⁶⁾ 22일에는 ‘曰今有受人之牛羊’부터 ‘他日見於王’까지 읽었다.¹⁹⁷⁾ 1월은 4일, 13일, 22일로 3회 독서하였다. 2월 8일은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렸어도 誠正閣으로 가서 시독관 李顯模와 『孟子』 第二卷下篇, ‘孟子謂蚘蠹’부터 ‘綽綽然有餘裕哉’까지 읽었으며,¹⁹⁸⁾ 13일은 洪文泳과 ‘孟子自齊葬於魯’부터 ‘不以天下儉其親’까지,¹⁹⁹⁾ 20일은 尹行元和 ‘沈同以其私問’부터 ‘何爲勸之哉’까지 읽고 토론하였다.²⁰⁰⁾ 이상 2월의 독서회수는 8일, 13일, 20일로 3회로 나타났다. 3월은 휴강하고, 4월에는 4일 辰時에 誠正閣에서 주강을 하였다. 이 날 시독관 朴天行과 ‘孟子致爲臣而歸’부터 ‘是爲欲富乎’를 읽고 그 의미를 들었으며,²⁰¹⁾ 다음 날 5일에는 卯時에 시작하여 어제 읽었던 부분을 다시 읽은 다음 朴天行과 『孟子』 第二卷, ‘季孫曰異哉’부터 ‘古之爲市者章’까지 읽었다.²⁰²⁾ 12일 辰時에는 洪文泳과 ‘孟子去齊’부터 ‘子爲長者慮章’까지,²⁰³⁾ 19일 卯時에도 洪文泳과 ‘孟子去齊’부터 ‘則必反予’까지,²⁰⁴⁾ 26일 辰時에는 徐有成과 ‘夫出晝’부터 ‘尹士聞之章’까지,²⁰⁵⁾ 29일에도 徐有成과

190) 『承政院日記』 正祖 5年 8月 10日 己卯.[庚辰] 26/26. “上曰, 近來經筵講讀之聲, 殆不如古, 反不如召對之時, 甚可慨也. 此後則必以舊規讀奏, 可也.”

191) 『承政院日記』 正祖 5年 10月 17日 丙戌. 27/29

192) 『朝鮮王朝實錄』 正祖 5年 11月 5日 (癸卯) 卷12. 冊45. p.280.

193) 『承政院日記』 正祖 5年 11月 5日 癸卯. 16/17

194) 『承政院日記』 正祖 5年 11月 4日 壬寅 2/27. “李世奭啓曰, 明日常參·經筵, 取稟. 傳曰, 只朝講.”

195) 『承政院日記』 正祖 6年 1月 4日 辛丑. 20/24

196) 『承政院日記』 正祖 6年 1月 13日 庚戌. 28/29

197) 『承政院日記』 正祖 6年 1月 22日 己未. 30/34

198) 『承政院日記』 正祖 6年 2月 8日 乙亥. 19/19

199) 『承政院日記』 正祖 6年 2月 13日 庚辰. 15/17

200) 『承政院日記』 正祖 6年 2月 20日 丁亥. 18/20

201) 『承政院日記』 正祖 6年 4月 4日 庚午. 21/22

202) 『承政院日記』 正祖 6年 4月 5日 辛未. 37/39

203) 『承政院日記』 正祖 6年 4月 12日 戊寅. 18/18

204) 『承政院日記』 正祖 6年 4月 19日 乙酉. 30/32

‘孟子去齊’부터 ‘吾何爲不豫哉’까지 읽고 그 의미를 논하였다.²⁰⁶⁾ 이와 같이 4월에는 독서를 4일, 5일, 12일, 19일, 26일, 29일로 총 6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에는 25일 卯時에 誠正閣으로 가서 姜彝正과 『孟子』 第三卷, ‘滕文公爲世子’부터 ‘今滕絶長章’까지,²⁰⁷⁾ 28일 辰時에는 尹尙東과 ‘滕定公薨’부터 ‘然友反命定爲三年之喪章’까지,²⁰⁸⁾ 29일 辰時에도 尹尙東과 ‘滕文公問爲國’부터 ‘夏后氏五十而貢章’까지 읽고 토론하였다.²⁰⁹⁾ 결국 5월의 독서는 25, 28, 29일로 3회에 그쳤다. 6-7월은 휴강하고 8월에 주강을 열었는데, 19일 시독관 沈樂洙와 ‘龍子曰’부터 ‘詩曰周雖舊邦章’까지 1회하고 12월까지 한 번도 독서하지 않았다.²¹⁰⁾

이상으로 정조 전반기 재위 6년까지 독서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즉위년에 읽었던 책은 『春秋』로 독서회수는 14회였으며, 정조 1년 10월부터 4년 6월까지 『論語』을 읽었으며, 독서회수는 1년 39회, 2년 33회, 3년 31회, 4년 47회였다. 4년 7월부터는 『孟子』를 읽었으며, 독서회수는 5년 14회, 6년 16회로 나타났다. 시간은 주로 辰時와 巳時로 정하였으나 가끔 卯時나 午時에도 주강을 열었다. 장소는 즉위년부터 1년 5월 25일까지 <興政堂>, 3년 4월까지 <熙殿堂>을, 그 후 6년까지 <誠正閣>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2 後半期

정조 7년(1783)부터 14년(1790)까지 후반기에 들어서는 주강이 뜸하게 개설된 관계로 독서가 상당히 부진하였다.

6년 6월부터 거의 주강을 실시하지 않다가 정조 7년(1783) 1월 18일부터 시작하였다. 그 날 辰時에 <宣政殿>으로 가서 常參 후 시독관 沈基泰와 『孟子』 第三卷, ‘使畢戰問井地’부터 ‘此其大略也章’까지 읽었으며,²¹¹⁾ 다음 달 19일 辰時에는 <誠正閣>에서 주강을 열었다. 이 날도 沈基泰와 ‘有爲神農之言者許行’부터 ‘惡得賢’까지 읽고 검토회관 嚴思晚 등과 토론하였다.²¹²⁾ 이에 1월의 독서는 18일 1회, 2월도 19일 1회로 마감하였다. 3월은 휴강하고, 4월 18일 辰時, 誠正閣에서 시독관 趙興鎮과 ‘陳相見許行’부터 ‘耕且爲也’까지,²¹³⁾ 다음 날 19일엔 姜儉과 ‘當堯之時’부터 ‘而暇耕乎’까지 읽었으며,²¹⁴⁾ 23일도 姜儉과 ‘堯以不得舜爲己憂’부터 ‘爲天下得人難’까지 읽고 검토회관 李鼎運 등과 토론하

205) 『承政院日記』 正祖 6年 4月 26日 壬辰. 28/30

206) 『承政院日記』 正祖 6年 4月 29日 乙未. 24/25

207) 『承政院日記』 正祖 6年 5月 25日 辛酉. 23/25

208) 『承政院日記』 正祖 6年 5月 28日 甲子. 17/17

209) 『承政院日記』 正祖 6年 5月 29日 乙丑. 14/14

210) 『承政院日記』 正祖 6年 8月 19日 癸未. 48/49

211) 『承政院日記』 正祖 7年 1月 18日 庚戌. 45/47

212) 『承政院日記』 正祖 7年 2月 19日 庚辰. 47/51

213) 『承政院日記』 正祖 7年 4月 18日 戊寅. 25/30

214) 『承政院日記』 正祖 7年 4月 19日 己卯. 24/26

였다.²¹⁵⁾ 그리고 28일엔 卯時에 孟子第三卷二十四板上片, 堯以不得舜爲己憂大文及分人以財謂之惠大文까지 읽은 뒤 시독관 李錫夏와 下片, 孔子曰大哉, 堯之爲君大文, 二十五板 吾聞用夏變夷大文及孔子沒大文을 읽었다.²¹⁶⁾ 이상 4월의 독서는 18일, 19일, 23일, 28일로 4회였다. 5월은 휴강하고, 6월은 5일 1회만 앞에 읽었던 ‘孟子許行章傳’을 읽고, 시독관 李魯春에게 아래의 ‘大文’을 읽고 문의를 말하도록 하였다.²¹⁷⁾ 그 후 6월의 주장은 정지하였다. 7월도 26일까지 주장을 하지 않다가 27일과 29일 2회 실시하였다. 27일은 卯時에 李太亨과 ‘墨者夷之因徐辟’부터 ‘則是以所賤事親’까지,²¹⁸⁾ 29일에도 李太亨과 ‘徐子以告夷子’부터 ‘命之矣’까지 읽었다.²¹⁹⁾ 이 날 정조는 주장에 무신이 참여해야 할 법을 만들도록 하였다. 입시할 명단에 윤대할 무신을 기록해서 돌아가면서 들어오도록 하라고 했다. 요즘은 무신 李邦城 한 사람만 들어오므로 이는 기강을 확립하는데도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²²⁰⁾ 8월은 휴강하고, 9월 1일 午時에 誠正閣에서 李鼎運과 독서한 뒤로는 12월까지 중단하였다.²²¹⁾ 정조 7년의 주장에서 독서를 보면, 1월 1회, 2월 1회, 3월 휴강, 4월 4회, 5월 휴강, 6월 1회, 7월 2회, 8월 휴강, 9월 1회, 10월 휴강, 11월 휴강, 12월 휴강으로 총 10회이다. 주장을 한 달에 1회도 못할 정도로 글을 읽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정조 8년(1784)에는 1월에는 13일 1회 독서하고 휴강하였다. 이 날 辰時 誠正閣으로 가서 앞 전에 읽었던 내용 ‘昔者趙簡子’부터 ‘未有能直人者也’까지 읽은 다음 시독관 林道浩와 ‘景春曰’부터 ‘此之謂大丈夫’까지 읽었다.²²²⁾ 1월 24일에 주장하려 했으나 경연관이 부름을 어겨 소대로 대체하였다.²²³⁾ 결국 다음 날 25일 우의정 金燧이 어제 명을 어긴 경연관들을 파직하도록 하였다.²²⁴⁾ 2월은 8일, 26일, 27일 3회 실시하였다. 8일 辰時에 誠正閣으로 가서 1월 13일에 읽었던 부분을 다시 읽은 다음 시독관 林濟遠과 ‘周霄問曰古之君子仕乎’부터 ‘亦不足吊乎’까지 읽었는데, 본장의 강독을 당일 마치도록 하여 ‘出疆必載質’부터 ‘鑽穴隙之類也’까지 읽었다.²²⁵⁾ 이 범위는 곧 『孟子』 騰文公 下篇 3장을 마무리 한 것이다. 26일에는 辰時에 창덕궁 讌華堂으로 가서 8일에 읽었던 부분을 읽고 시독관 李祖承과 ‘彭更問曰後車數十乘’부터 ‘食功也’까지 읽었다.²²⁶⁾ 이 부분은 騰文公 下篇 4장에 해당된다. 27일에는 宣政殿에서 趙濟魯와 ‘萬章問曰宋小國也’부터 ‘后來其無罰’까지 읽었다.²²⁷⁾ 3월

215) 『承政院日記』 正祖 7年 4月 23日 癸未. 10/13

216) 『承政院日記』 正祖 7年 4月 28日 戊子. 22/23

217) 『承政院日記』 正祖 7年 6月 5日 乙丑. 36/37

218) 『承政院日記』 正祖 7年 7月 27日 丙辰. 30/32

219) 『承政院日記』 正祖 7年 7月 29日 戊午. 21/22

220) 『朝鮮王朝實錄』 正祖 7年 7月 29日(戊午) 卷16. 冊45. p.387.

221) 『承政院日記』 正祖 7年 9月 1日 己丑. 32/32

222) 『承政院日記』 正祖 8年 1月 13日 己亥. 17/19

223) 『朝鮮王朝實錄』 正祖 8年 1月 24日(庚戌) 卷17. 冊45. p.423.

224) 『朝鮮王朝實錄』 正祖 8年 1月 25日(庚戌) 卷17. 冊45. p.424.

225) 『承政院日記』 正祖 8年 2月 8日 甲子. 31/32

226) 『承政院日記』 正祖 8年 2月 26日 壬午. 30/31

227) 『承政院日記』 正祖 8年 2月 27日 癸未. 16/17

12일 辰時에 讌華堂으로 가서 2월 27일 독서 내용을 다시 읽은 다음 시독관 李翼晉과 ‘有攸不爲臣’부터 ‘一薛居州獨如宋王何’까지 읽었으며,²²⁸⁾ 17일에도 讌和堂에서 林濟遠과 ‘公都子曰’부터 ‘充其操者也’까지 읽었다.²²⁹⁾ 이에 3월의 독서는 12일, 17일 2회 실시하였다. 윤3월 19일에도 辰時에 讌華堂에서 李魯春과 『孟子』 第四卷, ‘孟子曰離婁之明’부터 ‘仁覆天下矣’까지 읽고²³⁰⁾ 주장을 5월 24일까지 정지하였다. 5월 25일 주장은 이른 시간인 卯時에 誠正閣에서 실시하였다. 정조는 앞에 읽었던 孟子四卷 離婁章을 읽은 다음 시독관 曹允大와 ‘故曰爲高, 必因丘陵’부터 ‘吾君不能, 謂之賊’까지 읽었다.²³¹⁾ 그리고 다음 날부터 10월까지 주장에서의 독서는 중지되었다. 11월 4일 辰時에 誠正閣에서 주장을 열고 李鼎運과 ‘孟子曰規矩方圓之至也’부터 ‘沛然德教溢乎四海’까지 읽었으며,²³²⁾ 8일에는 午時에 ‘孟子曰天下有道’부터 ‘逝不以濯’까지 읽었다.²³³⁾ 이 날 정조는 “『弘文館志』를 보니까 다시 강독하는 책은 이전에 배운 글의 음을 친히 읽는 규례가 없다. 나는 이미 『孟子』를 네 번이나 복습을 했으니 새로 배우는 음만 읽을 것이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십 행씩을 한정하여 시일을 많이 허비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²³⁴⁾ 즉, 전에 읽었던 내용은 앞으로 다시 읽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후부터는 복습이 없어지고 다음 진도 항목만 읽게 되었다.

정조 9년(1785)에는 1월 25일까지 주장이 없었다. 다음 날 26일 辰時에 誠正閣으로 가서 복습은 생략하고 시독관 李敬一과 ‘孟子曰自暴者不可與有言’부터 ‘必爲政於天下矣’까지 읽었으며,²³⁵⁾ 28일에는 ‘求也爲季氏宰’부터 ‘曰天下溺’까지 읽었다.²³⁶⁾ 이에 1월은 26일과 28일 2회 독서하였다. 2월은 20일 동일 시간, 장소에서 역시 李敬一과 ‘公孫丑曰 君子之不教子’부터 ‘好爲人師’까지,²³⁷⁾ 22일에는 鄭萬始와 ‘樂正子從於子敖之齊’부터 ‘此之謂大孝’까지 읽었다.²³⁸⁾ 26일에도 주장을 열었으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다. 이상 2월의 독서는 20, 22일, 26일로 3회 실시하였다. 이 후 3월까지 독서를 중단하고 4월 3일 하루 시독관 嚴思憲과 ‘孟子曰 無罪而殺士 則大夫可以去’부터 ‘行不必果 惟義所在’까지 읽었다.²³⁹⁾ 또 다시 8월 22일까지 휴강하였다. 8월 23일 辰時에 誠正閣에서 李錫夏와 ‘孟子大人者, 不失其赤子之心章’을 읽었으며,²⁴⁰⁾ 27일엔 巳時에 전과 같은 장소에서 『孟子』 <離婁篇>, ‘孟子曰, 禹惡旨酒’부터 ‘坐而待旦’까지 읽고 그 의미에 대해서 토론하였다.²⁴¹⁾ 이와 같이 8월은

228) 『承政院日記』 正祖 8年 3月 12日 丁酉. 34/38

229) 『承政院日記』 正祖 8年 3月 17日 壬寅. 25/26

230) 『承政院日記』 正祖 8年 윤3月 19日 甲戌. 18/19

231) 『承政院日記』 正祖 8年 5月 25日 己卯. 45/49

232) 『承政院日記』 正祖 8年 11月 4日 乙卯. 34/37

233) 『承政院日記』 正祖 8年 11月 8日 己未. 13/14

234) 『朝鮮王朝實錄』 正祖 8年 11月 8日(己未) 卷18. 冊45. p.477.

235) 『承政院日記』 正祖 9年 1月 26日 丙子. 23/25

236) 『承政院日記』 正祖 9年 1月 28日 戊寅. 11/13

237) 『承政院日記』 正祖 9年 2月 20日 庚子. 20/21

238) 『承政院日記』 正祖 9年 2月 22日 壬寅. 23/24

239) 『承政院日記』 正祖 9年 4月 3日 壬午. 27/28

240) 『承政院日記』 正祖 9年 8月 23日 庚子. 20/20

23일, 27일 2회로 마무리하였다. 9월에는 18일 辰時에 誠正閣에서 趙濟魯와 ‘孟子曰王者之迹’부터 ‘發乘矢而後反’까지,²⁴²⁾ 30일에는 巳時에 李錫夏와 ‘孟子曰西子蒙不潔’부터 ‘以我爲簡不亦異乎’까지 읽고²⁴³⁾ 12월까지 휴강에 들어갔다. 정조 9년의 독서는 1월 2회, 2월 3회, 3월 휴강, 4월 1회, 5-7월 휴강, 8월 2회, 9월 2회, 10-12월 휴강으로 총 10회였다.

정조 10년(1786) 오랫동안 휴식한 정조는 다음 읽을 책으로 『中庸』을 선정하고, 1월 14일 辰時에 誠正閣으로 가서 시독관 曹允大와 ‘天命之謂性’부터 ‘不能期月守也’까지 읽었다.²⁴⁴⁾ 19일에는 『실록』에는 주장 실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일기』에는 정지로 기록되어 있다.²⁴⁵⁾ 2월 9일에도 실록에는 주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일기에는 내용이 없다.²⁴⁶⁾ 3월은 휴강하고 4월 21일 沈晉賢과 ‘二十一章, 誠明’부터 ‘二十六章純亦不已’까지 읽은 다음 ‘自誠明’에서 ‘純亦不已’까지 읽었다.²⁴⁷⁾ 이후 12월까지 주장을 실시하지 않았다. 결국 정조 10년에 실시한 독서는 1월 2회, 2월 1회, 4월 1회로 4회에 그쳤다.

정조 11년(1787) 1월 18일에는 장소를 熙政堂으로 옮기어 李太亨과 ‘大哉聖人之道’부터 ‘所以爲大也’까지 읽은 후 『中庸』에 대한 문의를 듣고 토론하였다.²⁴⁸⁾ 그 후 1월 26일 『실록』에는 주장의 기록이 없고, 『일기』에는 주장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세부 내용은 없다.²⁴⁹⁾ 또한 1월 27일에는 『실록』에는 주장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일기』에는 정지로 기록되어 있다. 2월 22일에는 誠正閣에서 李羽晉과 『大學』 第三十三章, ‘詩曰衣錦尙絢’부터 ‘上文所謂不顯之德’까지 읽고 휴강하였다.²⁵⁰⁾ 3월 20일에는 卯時에 熙政堂에서 金履翼과 大學經一章을 읽은 후 문의를 듣고 검도관 趙鎭宅 등과 토론하였다.²⁵¹⁾ 이 후 4월부터 7월까지 주장을 정지하였다. 8월 20일 辰時에 다시 재개하여 熙政堂에서 金履翼과 『大學』 ‘所謂修身在正其心者’부터 ‘此謂治國在齊其家章’까지 읽고 문의를 해석하였으며,²⁵²⁾ 동 23일에는 魚用謙과 ‘所謂平天下’부터 ‘亦悖而出章’까지 읽었다.²⁵³⁾ 9월에는 3일 辰時 熙政堂에서 金履翼과 ‘康誥曰惟命不于常’부터 ‘不以利爲利以義爲利也’까지,²⁵⁴⁾ 동 11일에는 卯時 熙政堂에서 李鼎德과 『中庸』 ‘天命之謂性’부터 ‘右第五章’까지 읽었다.²⁵⁵⁾

정조 11년의 주장에서의 독서는 1월 2회, 2월 1회, 3월 1회, 4-7월 휴강, 8월 2회, 9월 2회로

241) 『承政院日記』 正祖 9年 8月 27日 甲辰. 39/40

242) 『承政院日記』 正祖 9年 9月 18日 甲子. 26/26

243) 『承政院日記』 正祖 9年 9月 30日 丙子. 24/25

244) 『承政院日記』 正祖 10年 1月 14日 己未. 29/32

245) 『承政院日記』 正祖 10年 1月 9日 甲子. 1/44. “上在昌德宮. 停常參·經筵.”

246) 『承政院日記』 正祖 10年 2月 9日 癸未. 1/58. “上在昌德宮. 停常參·經筵.”

247) 『承政院日記』 正祖 10年 4月 21日 甲午. 29/32

248) 『承政院日記』 正祖 11年 1月 18日 丁亥. 32/35

249) 『承政院日記』 正祖 11年 1月 26日 乙未. 1/33. “上在昌德宮. 停常參, 只畫講.”

250) 『承政院日記』 正祖 11年 2月 22日 庚申. 21/23

251) 『承政院日記』 正祖 11年 3月 20日 戊子. 38/41

252) 『承政院日記』 正祖 11年 8月 20日 乙卯. 34/36

253) 『承政院日記』 正祖 11年 8月 23日 戊午. 35/35

254) 『承政院日記』 正祖 11年 9月 3日 丁卯. 28/30

255) 『承政院日記』 正祖 11年 9月 11日 乙亥. 17/18

총 8회였다.

정조 12년(1788)의 주장은 1월 14일부터 시작하였다. 14일은 辰時에 熙政堂으로 가서 시독관 宋祥濂과 『中庸』 ‘天下國家可均’부터 ‘察乎天地’까지 읽었다.²⁵⁶⁾ 이 날 정조는 주장에 결석한 대간들을 파직하도록 하였다.²⁵⁷⁾ 동 23일에는 같은 시간, 장소에서 金履翼과 ‘道不遠人’부터 ‘雖柔必強’까지 읽었으며,²⁵⁸⁾ 26일 卯時에는 成德雨와 함께 ‘自誠明謂之性’부터 ‘以保其身其此之謂與’까지 읽고 1월은 3회로 마무리하였다.²⁵⁹⁾ 2월은 9일 辰時 誠正閣에서 申大尹과 『中庸』 ‘愚而好自用’부터 ‘吾從周’까지 문장의 의미를 들었다.²⁶⁰⁾ 3월은 휴강하고 4월 2일 卯時에 誠正閣으로 가서 시독관 沈晉賢과 『中庸』 二十九章에서 三十章까지 읽었으며,²⁶¹⁾ 동 23일에는 卯時에 熙政堂으로 옮겨 俞漢謨와 ‘仲尼祖述堯·舜’부터 ‘第三十一章’을 읽었다.²⁶²⁾ 결국 12년의 독서는 1월 3회, 2월 1회, 3월 휴강, 4월 2회 실시하고 12월까지 정지한 관계로 1년 총 6회에 그쳤다.

정조 13년(1789)에는 1월 12일 卯時에 熙政堂에서 주장에 참여해야 할 관리 중 종신이 참여하지 않은 관계로 책임을 묻도록 한 뒤 시독관 李遇濟와 『中庸』 ‘惟天下至誠爲能經綸天下之大經’부터 ‘上天之載，無聲無臭至矣’까지 읽었다.²⁶³⁾ 그 후 4월까지 휴강에 들어갔다. 5월 6일 卯時, 誠正閣에서 申獻朝와 『大學』 經一章, ‘明明德’부터 ‘致知在格物’까지 읽었다.²⁶⁴⁾ 이상 13년의 독서는 1월 1회와 5월 1회로 총 2회로 나타났다.

정조 14년(1790)에는 3월까지 휴강한 뒤 4월 11일 辰時에 熙政堂에서 시독관 柳文養과 大學傳九章을 읽은 다음 검토관 李錫夏, 동지사 李秉鼎, 특진관 鄭好仁, 참찬관 沈晉賢 등과 차례대로 문의를 듣고 토론하였다.²⁶⁵⁾ 이 후 한 번도 주장을 열지 않다가 정조 21년(1797) 4월 20일 卯時에 集福軒外軒으로 가서 시독관 朴載淳과 『中庸』 ‘三十章仲尼祖述堯·舜’부터 ‘三十二章其孰能知之’까지 읽었다. 당시 참여한 관리들은 시독관 외 특진관 閔鍾顯, 지경연 李秉鼎, 참찬관 申耆, 검토관 金近淳, 가주서 李允謙, 기사관 金良倜·金履永, 종신 西春君燁[西春君燁], 무신 李得濟, 사부 宋煥箕, 동성군 沈煥之, 좌승지 李晚秀, 재녕군수 宋欽書 등이었다.²⁶⁶⁾ 이 날 『中庸』 제30장을 강독하였는데, 상이 원자 사부 宋煥箕에게 문장의 의미를 말하도록 하면서 토론이 시작되었다.²⁶⁷⁾ 이 후 주장은 실시되지 못하고 정조 21년 4월 20일 1회로 정지되었다.

256) 『承政院日記』 正祖 12年 1月 14日 丁丑. 13/14

257) 『朝鮮王朝實錄』 正祖 12年 1月 14日(丁丑) 卷25. 冊45. p.683.

258) 『承政院日記』 正祖 12年 1月 23日 丙戌. 10/10

259) 『承政院日記』 正祖 12年 1月 26日 己丑. 13/15

260) 『承政院日記』 正祖 12年 2月 9日 壬寅. 10/11

261) 『承政院日記』 正祖 12年 4月 2日 甲午. 22/24

262) 『承政院日記』 正祖 12年 4月 23日 乙卯. 18/20

263) 『承政院日記』 正祖 13年 1月 12日 己巳. 40/42

264) 『承政院日記』 正祖 13年 5月 6日 壬戌. 35/36

265) 『承政院日記』 正祖 14年 4月 11日 辛酉. 36/37

266) 『承政院日記』 正祖 21年 4月 20日 庚寅. 23/24

267) 『朝鮮王朝實錄』 正祖 21年 4月 20日(庚寅) 卷46. 冊47. p.18.

이상으로 정조 후반기 7년부터 14년까지 독서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7년의 독서회수는 10회, 8년 10회, 9년 10회, 10년 4회, 11년 3회, 12년 6회, 13년 2회, 14년 1회, 그리고 21년 1회 실시하고 중단하였다. 후반기에 읽었던 책은 『孟子』로 9년 9월까지 읽었으며, 10년엔 『中庸』, 13년부터 『大學』을 읽었으나 연간 독서회수가 13년 2회, 14년 1회인 것으로 보아 완독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독서시간은 辰時가 많았으며, 그 밖에 卯時, 午時에도 실시하였다. 독서 장소는 7년 1월 18일 하루 <宣政殿>을 이용하고, 8년부터는 <誠正閣>과 <讌華堂>, 11년부터는 <熙政堂>을 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 讀書資料 및 讀書回數分析

3.1 讀書資料

정조가 25년 재위 중 주장에서 독서자료는 『春秋』 『論語』 『孟子』 『中庸』 『大學』으로 5종뿐이다. 즉위년에 『春秋』를 선정하여 즉위년 8월 9일부터 1년 9월 6일까지 읽다가 중단하고 『論語』를 읽었다. 『論語』는 1년 10월부터 4년 6월까지 2년 8개월 만에 완독한 뒤 『孟子』를 선정하였다. 『孟子』는 4년 7월부터 9년 9월까지 읽었으며, 그 후 『中庸』은 10년 1월부터 13년 1월까지 31장을 읽고 중단했다가 다시 21년(1797) 4월에 30장-32장까지 읽었다. 『大學』은 13년 5월 1회, 14년 4월 11일 1회로 2회 하고 중단하였다.

조부인 영조가 주장에서 읽었던 자료는 『論語』 『孟子』 『中庸』 『書經』 『禮記』 『詩傳』 『周易』 『春秋集傳』 『心經』 『周禮』 『大學』 『近思錄』 『小學』 등 13종이다.²⁶⁸⁾ 이 중 『大學』 『近思錄』 『小學』을 제외하면 재위 24년 전에 읽은 책은 10종에 해당한다. 독서 기간에 있어서도 영조와 차이가 있다. 동일한 책으로 이를 비교해보면 <表 1>과 같다.

<表 1> 正祖와 英祖의 讀書期間

書講資料	正祖			英祖		
	開讀 在位年月	完讀 在位年月	期間	開讀年月日	完讀年月日	期間
春秋集傳	即位年 8月	1年 9月	未完讀	14年 10月	17年 6月	2.8년
論語	1年 10月	4年 6月	2.8년	1년 1月	1년 7月	6개월
孟子	4年 7月	9年 9月	5.2년	1년 7月	3年 4月	2.9년
中庸	10年 1月	13年 1月 -	3년-	3年 5月	4年 2月	9개월
大學	13年 5月	--	未完讀	31年 10月	34年 11月	3.1년

268) 金重權, “朝鮮朝 經筵에서 英祖의 讀書歷 考察,” 『서지학연구』 제79집(2019. 9).

『春秋』 독서기간은 영조가 2년 8개월 만에 완독하였으나 정조의 경우 1년만 하고 중단하였으며, 『論語』 완독은 영조 6개월, 정조 2.8년, 『孟子』 독서기간은 영조 2.9년, 정조는 5.2년이 소요되었다. 『中庸』의 경우도 영조는 9개월 만에 완독한 반면에 정조는 3년이 지났어도 완독하지 못했으며, 『大學』은 2회만 하고 중단하고 말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앞 장에서 밝혔듯이 신하들과 학문적 수준이 맞지 않고, 국사에 바쁘다 보니까 그랬다고 하나 학문적으로 뛰어난 정조가 선왕부터 실행해 온 경연을 정지해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3.2 讀書回數

본 장에서는 정조가 즉위년부터 주강을 열어 독서한 회수를 분석하여 독서이력을 밝히고자 한다.

<表 2> 讀書回數

年度 \ 月	1	2	3	4	5	6	7	8	9	10	11	12	計	累計
즉위								3	6	0	5	0	14	14
1	7	4	4	7	4	1	0	1	5	2	3	1	39	53
2	7	3	2	3	0	6	0	3	0	7	1	1	33	86
3	3	0	1	3	0	0	1	2	14	2	5	0	31	117
4	6	4	2	5	4	4	4	2	6	4	6	0	47	164
5	0	5	2	4	윤1	0	0	1	0	1	0	0	14	178
6	3	3	0	6	3	0	0	1	0	0	0	0	16	194
7	1	1	0	4	0	1	2	0	1	0	0	0	10	204
8	1	3	2윤1	0	1	0	0	0	0	0	2	0	10	214
9	2	3	0	1	0	0	0	2	2	0	0	0	10	224
10	2	1	0	1	0	0	0	0	0	0	0	0	4	228
11	2	1	1	0	0	0	0	2	2	0	0	0	8	236
12	3	1	0	2	0	0	0	0	0	0	0	0	6	242
13	1	0	0	0	1	0	0	0	0	0	0	0	2	244
14	0	0	0	1	0	0	0	0	0	0	0	0	1	245
15	-	-	-	-	-	-	-	-	-	-	-	-	-	
16	-	-	-	-	-	-	-	-	-	-	-	-	-	
17	-	-	-	-	-	-	-	-	-	-	-	-	-	
18	-	-	-	-	-	-	-	-	-	-	-	-	-	
19	-	-	-	-	-	-	-	-	-	-	-	-	-	
20	-	-	-	-	-	-	-	-	-	-	-	-	-	
21	0	0	0	1	0	0	0	0	0	0	0	0	1	246
22	-	-	-	-	-	-	-	-	-	-	-	-	-	
23	-	-	-	-	-	-	-	-	-	-	-	-	-	
24	-	-	-	-	-	-	-	-	-	-	-	-	-	
총회수	38	29	15	38	14	12	7	17	36	16	22	2		246

즉위년(1776) 4월부터 재위 24년(1800) 6월까지 재위 기간은 25년이지만 독서한 기간은 재위 9년(1785) 이후부터 거의 실시하지 못했다. <表 2>를 참고로 연도 별로 보면 즉위년 14회, 1년 39회, 2년 33회, 3년 31회, 4년, 47회, 5년 14회, 6년 16회, 7년10회, 8년 10회, 9년까지는 1년에 10회 이상 실시했으나 그 이후를 보면 10년 4회, 11년 8회, 12년 6회, 13년 2회, 14년 1회, 그리고 21년 1회로 그쳤다. 14년(1790)부터 24년(1800) 6월까지의 주장을 거의 열지 않았던 것이다. 가장 많이 독서한 해는 재위 4년으로 47회로 나타났다. 25년간을 종합한 월별 독서회수를 순차적으로 보면 1월과 4월 38회, 9월 36회, 2월 29회, 11월 22회, 8월 17회, 10월 16회, 3월 15회 순으로 1월, 4월이 가장 많았고, 7월(7회)과 12월(2회)은 가장 적은 독서회수를 보였다. 이는 더위와 추위 때문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재위 25년간 주장에서의 독서는 총 246회인 것으로 보아 경연에서의 독서는 아주 저조했음을 알 수 있다.

4. 讀書不進要因

본 장에서는 경연에서 독서가 왜 부진했는지 그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조는 세손시절부터 조부인 영조의 경연에 참여하여 『小學』이나 『大學』을 읽고 그 의미에 대해 문답하곤 하였다.²⁶⁹⁾ 조부의 지도하에 신하를 대하는 방법이나 국정을 운영하는 방법 등을 배우면서 성장하였다. 시강원에서는 꾸준히 3강을 지키면서 독서하였다. 왕이 되어서도 초기엔 독서의욕이 상당히 강했다. 즉위년 9월 2일에는 경연을 열어 독서하려는데 경연관이 이틀이나 오지 않아 취소된 적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옛사람이 임금의 덕을 성취시키는 것을 經筵에 맡겼는데, 내가 어찌 학문에 싫어하지 않는 공부 가 있었겠는가? 그런데 春邸에 있을 때부터 날마다 학문을 강론하는 것이 문득 습관을 이루다시피하여 진실로 제사지낼 때나 公務와 相值되는 것이 아니면 강독을 정지하려고 하지 않았었다. 어제와 오늘의 講筵은 경연관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開講하여 공무를 집행하지 못했으니, 경연관은 모두 한 등급을 減俸하게 하라.”하였다.²⁷⁰⁾

이와 같이 세손 시절부터 습관화되어온 독서를 이들 때문에 정지되자 감봉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독서태도는 그렇게 좋지 못했다. 1년(1777) 11월 20일에는 사간 任觀周가 정조의 경연에서 독서자세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즉, 정조가 문장의 字句와 音釋만 다루고 法講에서 글 뜻을 강론하는 것이 한두 곳에 지나지 않고 원래 敷演하여 논란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학문에

269) 『朝鮮王朝實錄』英祖 51年 11月 21日(甲午) 卷125. 冊44. p.504.

『朝鮮王朝實錄』英祖 51年 12月 27日(庚午) 卷126. 冊44. p.521.

『朝鮮王朝實錄』英祖 52年 1月 20日(壬辰) 卷127. 冊44. p.527.

270) 『朝鮮王朝實錄』正祖 卽位年 9月 2日(庚午) 卷2. 冊44. p.621.

익숙한 것이라도 게을리 하지 말고 문답에 잘 응하도록 권하였다.²⁷¹⁾ 그 후에도 정조는 경연에 열성적이지 못했다. 매월 경연의 횟수가 줄어들고 독서빈도도 떨어지자 대사간 柳憲은 겨울밤이 길어서 독서하고 토론하기 좋으니 신하들을 소대하여 책의 내용이나 정책을 토론하고 자문해야 한다고 건의한바 있다.²⁷²⁾ 날씨가 더워서 못하고 추워서 못하고 매년 여름과 겨울철에는 거의 독서를 하지 않았다. 정조 2년(1778) 우의정 鄭弘淳도 지금은 더우니 조금 서늘해지면 자주 경연을 열어 부지런히 토론에 임하도록 권하였다.²⁷³⁾ 계절이 바뀌어도 독서빈도는 좋지 못했다. 그해 겨울철 宋德相을 희정당으로 불러 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근래에 날씨가 추워진 때문에 준례에 따라 講筵을 정지했었는데, 경이 이제 올라왔으니, 자주 강연을 열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다짐은 그렇게 했으나 실천하지 못했다. 더욱이 정조 3년(1779) 12월 5일 지평 黃昇源의 상소 내용에

“전하를 보건대, 지혜롭고 충명하며 經史에 널리 통하여 性理의 분별과 治亂의 근본을 모두 환히 꿰어 아십니까라는 오늘날의 治象을 보면 구습을 따르는 것이 버릇되어 아직 크게 변하는 기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하께서 학문을 수련하고 실천하는 실지에 또한 미진함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²⁷⁴⁾

열심히 독서를 했으나 정치는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명을 내릴 때 관용과 너그러움이 부족하고, 말씀하실 때는 인정이 부족하십니다. 이는 왕께서 학문을 하는데 克己의 능력이 부족한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학문에 힘쓸 것을 건의한 것이다. 이듬해에도 교리 徐鼎修는 정조의 독서태도를 비판하였다. 즉, 늘 해야 하는 독서를 경연에서 하다 말다하여 집권 때부터 시작한 『論語』 한 권을 완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²⁷⁵⁾ 그러자 대제학 李在學도 정조에게 경연에서 강독하고 토론은 하고 계시나 장구 해석에만 급급하고, 『論語』를 읽고 있으나 그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궁금하며, 정조의 독서가 실속이 없다고 비판하였다.²⁷⁶⁾ 그러나 그 이후에도 정조는 독서 후 실천은 고사하고 그 태도 및 방법 면에서 문장 해석에만 집중하였으며, 또한 경연을 정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옥당에서는 경연관들의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알고 독서에 열정을 보이던 학문이 뛰어난 사람을 추천한다고까지 하였다.²⁷⁷⁾ 정조가 경연을 하다 말다 해서 독서에 치중하지 못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영의정 김상철이 정조에게 올린 차자의 내용 중에,

“우리 성상께서는 동궁에 계실 때부터 經傳을 두루 보시고 子史를 두루 연구하면서 세세한 것도 분석하고 심오한 것을 꿰뚫지 않음이 없으셨습니다. 단지 경연관이 顧問에 대비하거나 성상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상의 마음이 점차 헤이해져서 강연을 열었다가 중지하곤 하였습니다.

271) 『朝鮮王朝實錄』 正祖 1年 11月 20日(壬午) 卷4. 冊44. p.702.

272) 『朝鮮王朝實錄』 正祖 1年 11月 29日(辛卯) 卷4. 冊44. p.704.

273) 『朝鮮王朝實錄』 正祖 2年 6月 24日(壬子) 卷5. 冊45. p.30.

274) 『朝鮮王朝實錄』 正祖 3年 12月 5日(乙卯) 卷8. 冊45. p.141.7.

275) 『朝鮮王朝實錄』 正祖 4年 3月 8日(丁亥) 卷9. 冊45. p.156.

276) 『朝鮮王朝實錄』 正祖 4年 3月 27日(丙午) 卷9. 冊45. p.160.

277) 『朝鮮王朝實錄』 正祖 4年 10月 1日(丙午) 卷10. 冊45. p.185.

三講, 兩對는 열성조의 상대한 일이었습니다. 성상의 학문이 이미 고명해졌다고 생각하시거나 法講이 겹치려나 하는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경전을 강론하여 公私와 義利의 구분을 살피며, 子史를 강론하여 치란과 득실의 근본을 구명하여 학문을 하는 것과 정사를 하는 것이 서로 表裏가 되게 하소서. 그러면 성상의 뜻이 서지 못하고 성상의 치화가 융성하지 못할까 걱정할 게 뭐 있겠습니까?”²⁷⁸⁾

이는 세손 시절부터 경전과 諸子の 책 및 史記 등을 섭렵하였으나 요즈음에 와서 경연관들의 顧問에 합당하지 않아 왕의 마음이 해이해졌기 때문에 경연을 중지하곤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정조가 경연관들의 학문적 배경은 믿지 않고 자신의 실력만 내세우며 독서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5년(1781) 1월 21일 부제학 鄭志儉의 상소 중,

“先儒들은 경연을 出治의 근본으로 삼았습시다만, 돌아보건대, 지금 侍講하는 신하들은 이미 聖意를 개발하고 微旨를 토론하기에 부족합니다. 따라서 신은 진실로 전하께서 책을 읽으시는 유익은 매번 罷朝한 뒤에 있었고 진리를 탐구하는 공부는 乙夜(밤 10시경)에 더욱 傳心하실 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²⁷⁹⁾

즉, 경연관들이 정조의 의중을 알고 세심한 의미까지 토론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경연이 끝난 후나 늦은 밤에 나 홀로 독서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정조는 경연이 무미건조하다고 표현하기도 하였다.²⁸⁰⁾ 정조 6년(1782)에도 장령 李澤徵이 15개 조항의 건의문 중 첫 번째 조항으로 임금의 덕은 경연에 있으니 자주 경연관을 인접해서 토론하도록 하였다.²⁸¹⁾ 당시에는 열심히 하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경연을 소홀히 하였다. 이에 우의정 金燧이 경연을 열어 마음으로 독서하도록 권장하였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²⁸²⁾ 이듬해 7년(1783)에도 우의정 金燧과 영의정 徐命善도 경연을 자주 열도록 건의한 바 있다.²⁸³⁾

“제왕의 학문은 선비가 하는 학문과는 달라 하늘과 사람의 사이를 살피서 사람을 쓸 때에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강하고 저녁에 신하를 접견하는 것은 글을 외워 익히고 뜻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항상 옛날의 일을 끝어다가 지금의 일에 참조해 보고 저 일을 가지고 이 일을 비유해서 本體를 통하여 作用에 달하는 실지를 다하고자 하는 것이니, 이 때문에 임금의 학문은 반드시 정성껏 충고해 주는 신하가 필요한 것입니다. 경연에 자주 나오셔야 합니다.”

대답은 잘하는 편이다. 앞으로는 경연을 자주 열어 독서에 열중하겠노라 했지만 거의 정지하는 날이 많았다. 보다 못한 우의정 金鍾秀는 정조 13년(1789) 11월 17일 조강에서 『大學』을 읽은 후 다음과 같이 직간하였다.

278) 『朝鮮王朝實錄』 正祖 4年 12月 27日(辛未) 卷10. 冊45. p.201.

279) 『朝鮮王朝實錄』 正祖 5年 1月 21日(甲午) 卷11. 冊45. p.205.

280) 『朝鮮王朝實錄』 正祖 5年 10月 21日(庚寅) 卷12. 冊45. p.271.

281) 『朝鮮王朝實錄』 正祖 6年 2月 25日(壬辰) 卷13. 冊45. p.298.

282) 『朝鮮王朝實錄』 正祖 6年 8月 18日(壬午) 卷14. 冊45. p.326.

283) 『朝鮮王朝實錄』 正祖 7年 1月 5日(丁酉) 卷15. 冊45. p.341.

“(진략) 도대체 어찌하여 근년 이래로 講筵을 정지하는 날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까. 비록 聖學이 이미 高明한 경지에 이르기는 하였지만, 聖人과 狂人の 한계에 대해서는 옛사람이 경계를 하였으니, 학문을 힘쓰다 말았다 할 염려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의논하는 자들이 ‘이렇게 되는 것은 講官들을 점차 적임자로 얻지 못하여 성상께서 비록 경연에 임하여 물어보아도 누구 하나 聖意에 합당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성상의 뜻이 점점 더욱 시들해지는 것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혜가 있는 자도 한 번은 실수하고 어리석은 자도 한 번은 제대로 맞추는 것은, 비록 글 뜻에 있어서도 그러한 것이니, 어찌 아랫사람들이 전하의 뜻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하여 드디어 학문에 힘쓰는 일을 폐지해서야 되겠습니까. 바라건대 이제부터는 하루 세 차례의 강론과 召對하는 것을 큰 사고가 없는 한, 한 번도 거르지 말아서 학문을 빛낼 수 있는 바탕을 삼으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靑筵 때의 옛 관리로는 오직 경만이 남아 있다. 이제 간곡한 말을 들으니, 내 몫시 감탄스럽다. 마땅히 유념을 하겠다.”하였다.²⁸⁴⁾

당시 13년(1789)에는 1월과 5월 한 차례씩 2회 주강을 열고 독서한 해이다. 그 이듬해도 주강을 실시하지 않았다. 14년(1790) 3월 부교리 李暻의 상소 중에,

“신이 병오년(10년, 1786)에 외람스레 侍講의 반열에 몸을 담게 되었는데, 그 당시 진강의 籤紙가 『中庸』 제 28장에 끼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 다시 本館에 들어가서 法講하신 冊子를 보니, 겨우 『中庸』을 마치고 『大學』經 1장을 시작하였습니다. 4년 동안 강론한 것이 이처럼 적은 것으로 보아 經筵을 드물게 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중략) 대신과 유신들이 진후로 의견을 진술할 때마다 번번이 가상히 받아들이기는 하시는데 아직까지 그 實效가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한결 더 노력하소서.”²⁸⁵⁾

李暻은 이 밖에도 백성들의 현황과 대신들의 파직을 주장하다 본인이 파직 당하였다. 이는 경연을 잘 열지 않아 독서의 속도가 늦었음을 지적하자 정조의 심기가 상당히 불편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상소 후 4월에 1회 주강에서 독서하고 그 이후 실시하지 않았다. 정조가 경연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를 15년(1791) 8월 8일 부총관 李灌을 불러 얘기하는 중 다음과 같은 내용에서 알 수 있다.

“내가 즉위한 뒤로는 사실 경연에 자주 나가지 못하였다. 혹 朝講도 하고 혹 晝講도 하긴 하였으나, 이 역시 손으로 꼽을 정도이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선대왕께서 56세 이후로는 경연에 자주 나가시지 않다가 66세에 이르러 다시 경연에 나가시되 비바람과 추위 더위를 가리지 않고 매일 나가셨기 때문이다. 그 당시의 일에 대해서는 내가 차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정도 반드시 짐작할 것이다. 그때의 日記가 아직도 春坊에 있는데, 그 뒤부터는 ‘하루 세 번 강한다.(日三講)’는 말만 들으면 나도 모르게 정신이 날아가 스스로 안정을 하지 못한다. 내가 사냥개나 말, 음악이나 여색을 즐기지 않으니, 어찌 문자에 뜻이 없겠는가마는 근래에 이르러서는 국사가 복잡하여 자주 나가지 못한다.”²⁸⁶⁾

위의 내용상으로 보면 독서부진 요인이 첫째는 부친의 사건으로 충격 받은 점, 둘째는 하루 3회씩 경연을 열어 독서한다는 게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했다는 점, 셋째는 국사가 많아서 복잡한

284) 『朝鮮王朝實錄』 正祖 13年 11月 17日(己亥) 卷28. 冊46. p.76.

285) 『朝鮮王朝實錄』 正祖 14年 3月 14日(甲午) 卷29. 冊46. p.105.

286) 『朝鮮王朝實錄』 正祖 15年 8月 8日(庚戌) 卷33. 冊46. p.235.

나머지 경연에 자주 나가지 못했다는 점 등이다. 당시 승정원에서조차 정조의 경연 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경연을 오랫동안 중지하여 강론하고 품의하는 일은 한갓 걸치레가 되었고 홍문관의 관직은 결국 쓸모없는 관직이 되었으며, 우유부단한 습속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정계하고 성토하는 공정한 의논까지도 거의 폐기되는 등, 온 세상이 그에 휩쓸려 그만 말이 없는 조정이 되어버렸습니다.”²⁸⁷⁾

이는 정조가 경연에서 독서하는 일이 걸치레가 된 관계로 홍문관의 경연관들도 쓸모없는 관직이 되었다고 비판한 것이다. 그래도 정조는 경연을 열지 않았다. 주장은 하루도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곧 경연관들의 학덕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듬해인 정조 16년(1792) 4월 18일 정언 柳星漢의 상소 중에,

“신이 삼가 들건대 근일 전하께서 경연에 드물게 나아가신다 하는데, 경연 신하들의 문학과 덕행이 모두 성상의 마음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이니 이렇게 된 것은 모두가 여러 신하들의 잘못입니다.”²⁸⁸⁾

이는 경연에 드물게 나간 이유를 경연관의 실력미비 탓으로 돌린 것이다. 이의 근거로 앞에서 제시한 우의정 金鍾秀의 건의한 말 중에,

“어찌 아랫사람들이 전하의 뜻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하여 드디어 학문에 힘쓰는 일을 폐지해서야 되겠습니까.”²⁸⁹⁾

경연관들과 독서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자신의 실력보다 경연관의 실력이 부족하다고 여겼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이후에도 주장에서 독서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보다 못한 우의정 심환지도 정조 22년(1798) 11월 29일 경연 재개가 아니더라도 좋으니 때때로 경연관을 불러서라도 독서하도록 권하였다.²⁹⁰⁾ 이와 같이 여러 신하들은 경연관들과 글을 읽도록 자주 권유했으나 끝내 경연에서의 독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홀로 있을 때 여가에는 독서한다는 기록이 있다. 정조 23년(1799) 6월 직제학 李晩秀, 검교 沈象奎와 직각 金近淳을 편전으로 불러 자신은 열심히 독서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올 여름에는 삼복더위가 혹심하지만 나는 정사를 보는 여가에 책을 보는 공부를 한 번도 그만둔 적이 없다.”²⁹¹⁾

이 기록은 정조 자신이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열심히 독서하는데 초계문신은 뭐하나, 독서를 하든지 작문이라도 하든지 해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초계문신들이 읽을 수 있는 목록을 올리도록 한데서 한 말이다. 정조는 말년으로 가면서 주장을 자주 정지하여 공식적인 독서는 전혀 하지 않았던

287) 『朝鮮王朝實錄』 正祖 15年 10月 8日(己酉) 卷33. 冊46. p.246.

288) 『朝鮮王朝實錄』 正祖 16年 4月 18日(丙辰) 卷34. 冊46. p.288.

289) 『朝鮮王朝實錄』 正祖 13年 11月 17日(己亥) 卷28. 冊46. p.76.

290) 『朝鮮王朝實錄』 正祖 22年 11月 29日(戊子) 卷50. 冊47. p.136.

291) 『朝鮮王朝實錄』 正祖 23年 6月 25日(壬子) 卷51. 冊47. p.194.

것이다. 따라서 정조가 주강에서의 독서 부진 요인은 경연의 중지가 주된 원인이기도 하지만 심리적인 문제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부친의 사건으로 인한 충격이 독서 부진 요인이며, 둘째는 우월감일 수 있다. 즉, 경연관들의 학문실력보다 자신이 뛰어난을 인식하여 더 이상 경연관들에게 문장의 의미를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셋째는 세손시절부터 3강을 해온 습관으로 인해 왕이 되어서까지 그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감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앞의 내용 중 신하들의 건의문이나 대화 중에서도 간간히 입증되고 있다. 넷째는 국사의 복잡함으로 많은 심리적 압박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으로 볼 수 있다.

5. 結 言

이상 조선조 22대 왕인 正祖를 대상으로 晝講에서 즉위년(1776)부터 재위 24년(1800)까지 독서 일정을 파악하여 그의 독서력을 고찰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기 즉위년부터 6년(1782)까지 독서일정을 살펴본바 즉위년에 읽었던 책은 『春秋』로 독서회수는 14회였으며, 정조 1년(1777) 10월부터 4년(1780) 6월까지 『論語』을 읽었으며, 독서회수는 1년 39회, 2년 33회, 3년 31회, 4년 47회였다. 4년 7월부터는 『孟子』를 읽었으며, 독서회수는 5년 14회, 6년 16회로 나타났다. 독서시간은 주로 辰時와 巳時였으며, 가끔 卯時나 午時에도 실시하였다. 장소는 즉위년부터 1년 5월 25일까지 <興政堂>, 3년 4월까지는 <熙殿堂>을, 그 후 6년까지는 <誠正閣>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후반기는 7년(1783)부터 14년(1790)까지 독서회수를 보면, 7년 10회, 8년 10회, 9년 10회, 10년 4회, 11년 3회, 12년 6회, 13년 2회, 14년 1회, 그리고 21년 1회 실시하고 중단하였다. 후반기에 읽었던 책은 『孟子』로 9년 9월까지 읽었으며, 10년에는 『中庸』, 13년부터 『大學』을 읽었으나 연간 독서회수가 13년 2회, 14년 1회에 불과했다. 후반기 독서시간도 辰時가 많았으며, 그 밖에 卯時, 午時에도 실시하였다. 독서 장소는 7년 1월 18일 하루 宣政殿을 이용하고, 8년(1784)부터는 <誠正閣>과 <讌華堂>, 11년(1787)부터는 <興政堂>을 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영조와 독서자료 및 독서시간을 비교해 본바, 정조가 25년 재위 중 주강에서 독서한 자료는 『春秋』 『論語』 『孟子』 『中庸』 『大學』으로 5종이었으며, 영조는 『論語』 『孟子』 『中庸』 『書經』 『禮記』 『詩傳』 『周易』 『春秋集傳』 『心經』 『周禮』 『大學』 『近思錄』 『小學』 등 13종으로 이중 『大學』 『近思錄』 『小學』을 제외하면 영조는 재위 24년 전에 읽은 책은 10종이었다. 이에 비하면 정조가 읽은 책 수는 영조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서기간 면에서도 영조에 비해 시일이 많이 소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25년간을 종합한 월별 독서회수를 순차적으로 조사한바 1월과 4월 38회, 9월 36회, 2월 29회, 11월 22회, 8월 17회, 10월 16회, 3월 15회 순으로 1월, 4월이 가장 많았고, 7월(7회)과 12월(2회)

은 가장 적은 독서회수를 보였다. 이는 더위와 추위 때문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재위 25년간 주강에서의 독서는 총 246회인 것으로 보아 경연에서의 독서는 아주 저조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주강에서 정조의 독서 부진 요인은 경연의 중지가 주된 원인이었으며, 또한 심리적인 문제도 크다고 보았다. 첫째는 부친의 사건으로 인한 후유증이 독서 부진 요인이며, 둘째는 우월감일 수 있다. 즉, 경연관들의 학문실력보다 자신이 뛰어난을 인식하여 더 이상 경연관들에게 문장의 의미를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셋째는 세손시절부터 3강을 해온 습관으로 인해 왕이 되어서까지 그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감 때문이며, 마지막으로 국사의 복잡함으로 많은 심리적 압박감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조는 자유로운 독서에는 열성적이었으나 주강에서의 공식적인 독서는 저조함을 보였다. 이상 본 연구로 인하여 정조의 독서활동은 물론 조선조 경연사 및 제왕의 독서력 비교, 독서의 역사적인 연구 등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承政院日記』. 영인본.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68.
『英祖實錄』. 영인본.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86.
『正祖實錄』. 영인본.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86.
姜泰訓. “朝鮮朝 經筵의 教育的 役割.”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대학원. 1991.
金重權. “朝鮮朝 經筵에서 英祖의 讀書歷 考察.” 『서지학연구』 제79집(2019. 9). 23-58.
李相玉. “經筵에 나타난 經學과 帝王.” 『友石 文理大·法經大論文集』 第4輯(1970. 12). 131-186.
조유희. “영조 어제에 나타난 『詩經』독서의 양상과 의미.” 『정신문화연구』 제36권 제4호(2013). 230-258.

• 국문참고자료의 영어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Jeongjosillo*. 1986. photographic edition. Seoul: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Jo, Yoong-Hee. 2013. “Reading of Shijing and Its Meaning in King Yeongjo’s Literary Works.” *Korean Studies Quarterly*, 36(4): 230-258.
Kim, Joong-Gwon. 2019. “A study on the Yeongjo’s reading Career in the Gyeongyeon of Joseon Dynasty.”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79: 23-58.
Seungjeongwon. 1968. *Seungjeongwonilgi*. photographic edition. Seoul: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Yeongjosillo. 1986. photographic edition. Seoul: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